

# 제 2 장

2011마약류범 죄백서

## 마약류별 일반현황

PROSECUTION  
SERVICE

## 제1절 아편, 헤로인

### 1. 세계 개요

- 세계 아편류 남용자는 2009년 1,200만~2,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3/4은 헤로인 남용자로 2009년 한 해 동안 세계 인구의 1,200만~1,400만 명 상당의 헤로인 소비량은 375톤으로 아프리카니스탄에서 공급되어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비되는 상황임
- 세계 양귀비 경작면적은 2010년(약 195,700 ha)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그 경작면적 중 63%를 아프리카니스탄이 차지하고 있는데, 미얀마의 경작면적이 증가(75%)함에 따라 세계 양귀비 경작면적이 약 5% 가량 증가함
- 2009년 7,853톤에서 2010년 4,860톤으로 감소한 세계 양귀비 생산량은 아프리카니스탄의 양귀비 전염병(disease in opium poppy plants)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이 그 원인인 바, UNODC는 2011년 아프리카니스탄의 양귀비 생산량은 소폭 감소 또는 안정적인 추세로 예측하고 있음
- 2009년 아편류 및 헤로인의 압수량은 안정추세로 각각 653톤 및 76톤을 기록하였고, 헤로인의 밀거래량(압수량 포함)은 460~480톤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375톤이 실제 소비되었고, 특히 해상(maritime transportation and seaports)을 통한 밀매가 특이점임

제1절 아편, 헤로인

[표 2-1] 세계 양귀비 경작 면적

(단위: 헥타)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별									
황금의	아프가니스탄	80,000	131,000	104,000	165,000	193,000	157,000	123,000	123,000
초승달지대	파 키 스 탄	2,500	1,500	2,438	1,545	1,701	1,909	1,779	1,721
황금의	라 오 스	12,000	6,600	1,800	2,500	1,500	1,600	1,900	3,000
삼각지대	미 안 마	62,200	44,200	32,800	21,500	27,700	28,500	31,700	38,100
	콜 롬 비 아	4,026	3,950	1,950	1,023	715	394	356	
	맥 시 코	4,800	3,500	3,300	5,000	6,900	15,000	19,500	
	기 타 국 가 들	3,074	5,190	5,212	4,432	4,184	8,600	7,700	10,000
	합 계	168,600	195,940	151,500	201,000	235,700	213,003	185,935	195,677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표 2-2] 세계 양귀비 생산(추정)량

(단위: 톤)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별									
황금의	아프가니스탄	3,600	4,200	4,100	6,100	8,200	7,700	6,900	3,600
초승달지대	파 키 스 탄	52	40	36	39	43	48	44	43
황금의	라 오 스	120	43	14	20	9	10	11	18
삼각지대	미 안 마	810	370	312	315	460	410	330	580
	콜 롬 비 아	50	49	24	13	14	10	9	
	맥 시 코	101	73	71	108	149	325	425	
	기 타 국 가 들	50	75	63	16	15	139	134	185
	합 계	4,783	4,850	4,620	6,610	8,890	8,641	7,853	4,860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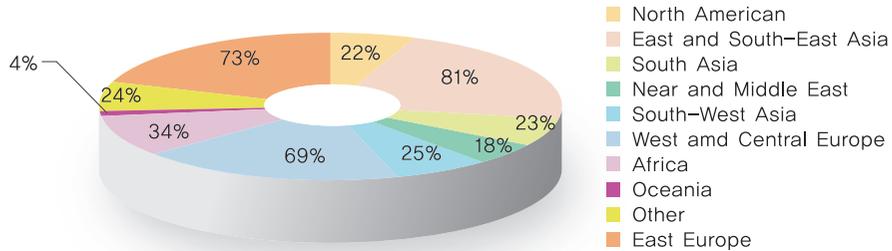
- 2009년 아편류의 전 세계시장 규모는 약 680억불(미화)로 그 중 헤로인이 약 610억불을 차지 하였으며 지역별 가격 편차는 컸는데, 아프카니스탄의 2010년 헤로인 가격은 상승하여 그램 당 4불 가량이었음

## 2. 소비(남용) 동향

- UNODC 추정 2009년 현재 전년도에 1회 이상 아편류 마약을 남용한 전 세계 인구(15~64세)는 1,200만~2,100만 명이며 헤로인 남용인구는 1,200만~1,400만 명으로 세계 아편류 남용 인구의 3/4에 해당하고, 생아편, 모르핀, 지역 아편<sup>1)</sup>이 주요 남용형태인데 생아편은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지역 아편은 거의 동유럽에서만 남용되고 있음
- 아편은 거의 대부분 북미 중심의 아메리카지역에서 남용되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 유럽 순이며 유럽지역과는 정반대로 아메리카 및 대양주(호주, 뉴질랜드)에서의 아편류처방 마약문제는 헤로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아편남용이 심각한 나라로는 아프카니스탄, 라오스, 미얀마, 이란 등으로 보고됨
- 헤로인 소비량은 2009년 375톤으로 추정되고 주로 중국, 파키스탄, 이란, 인도, 미국,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남용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지역에서는 동부, 서부, 중부지역에 편중되고 있음
- 아편흡식(Opium smoking)은 이란,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인도 등 서남아시아지역은 물론 동(남)아시아지역 중 주로 미얀마(Shan State), 라오스 북부에서 전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아편류의 남용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는 아프카니스탄으로 15~64세 인구 대비 2005년 1.4%에서 2009년에는 2.7%로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란, 중국, 러시아 순이었음

1) 지역별로 재배된 액속과 무수초산이 혼합된 형태로 생산된 것으로 Kompot 또는 cherniashka로 불리고, 주로 중앙아시아지역 및 동유럽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음(UNODC 세계마약보고서 2010)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2-1] 지역별 헤로인 소비량 비율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 가. 처방마약의 남용

- 아편류 처방마약의 남용률은 2009년 세계 성인 인구의 0.5~0.8%인 2,400만~3,50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특히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문제가 심각한 편임
- 미국의 경우 2008년 아편류 치료입원의 71%이상이 헤로인 관련이었고 전체 아편류 관련 치료입원 중 아편류 처방남용으로 인한 치료 입원률은 1998년 7%에서 2008년에는 29% 급증하는 추세임

## 나. 유럽

- 유럽지역에서는 2009년 헤로인 소비가 안정적 추세이긴 하지만, 사회보건문제는 여전한 바, 아편류 중 헤로인의 남용률이 15~64세 인구 중 0.6%가량(3,100백만~3,500만 명)으로 높은 편이고, 서부 및 중부유럽에서는 영국(350,000명), 이탈리아(216,000명), 프랑스(190,000명), 동유럽에서는 러시아(1백70만명), 우크라이나(370,000명)가 주요 남용국가임

## 다. 아시아

-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2009년 헤로인 남용이 안정적이지만, 일부 아시아지역에서는 증가 추세인 바, 아시아지역의 15~64세 인구의 아편 남용률은 0.2~0.5%인 650만~1,32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됨.
- 2009년 아편 남용이 심각한 서남아시아 중 아프카니스탄에서는 아편류 남용자의 60% 이상 이, 이란에서는 40% 이상이 아편을 남용하고 있고, 특히 이란의 경우 마약 관련 치료입원환자의 83% 이상(2009년)이 아편 관련으로 치료받았고, 이는 2006년과 2007년의 41%에 비해 급증한 추세이며, 마약 관련 사망률도 15~64세 인구대비 100만 명당 91명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중앙아시아지역의 상황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2009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마약류 남용자의 47%, 타지키스탄에서는 87% 이상이 헤로인 중독이었으며, 주사기 이용 남용률은 우즈베키스탄은 46%, 키르기스스탄 및 카자흐스탄은 70% 수준이었음
- 2006년 UNODC보고서<sup>2)</sup>에 따르면, 남아시아의 경우 방글라데시에서는 90%, 부탄은 2%가 흡연이나 주사기를 이용한 헤로인 남용자였고, 처방 아편류의 남용률도 부탄 및 스리랑카에서는 1%, 인도에서는 20%였는데 주사기를 이용한 헤로인 남용은 네팔, 인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아편 남용률이 높은 편인 바, 2009년에는 특히 중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이 그 예이며, 라오스, 싱가포르,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안정 또는 감소추세임

2) UNODC, Rapid Situation and Response Assessment of Drugs and HIV in Bangladesh, India, Nepal and Sri Lanka: A regional Report, 2006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라. 중동

- 2009년 중동지역의 아편 남용률은 낮은 편으로 UAE에서는 15~64세 인구 100만 명당 4.6명, 바레인에서는 44.3명이었음

### 마.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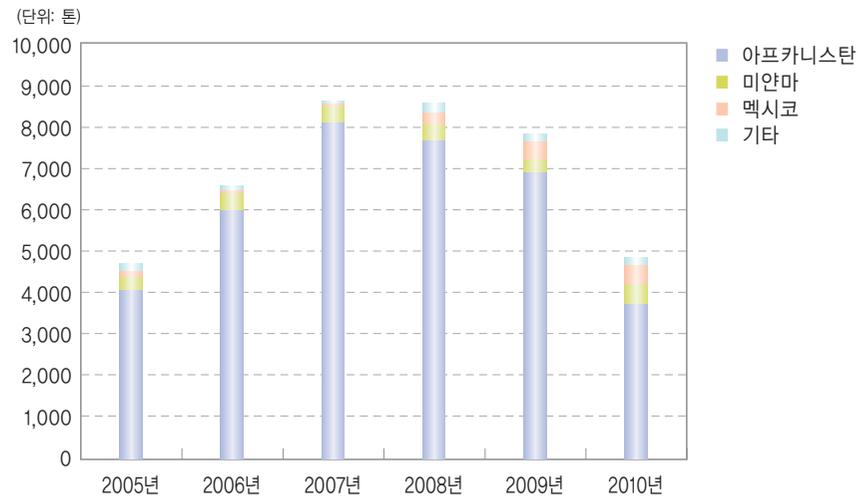
- 2009년 아편류 남용률은 15~64세 인구 중 0.2~0.6%인 890,000~3,200,000명으로 추정되며, 헤로인 남용률은 동아프리카지역의 모리셔스(Mauritius)는 0.91%, 케냐는 0.73%였음
- 특히, 케냐는 주사기 사용 헤로인 남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감염률도 전체 마약남용자의 42.9%로 매우 높았고, 탄자니아의 경우에도 2006년 보고에 따르면 주사기 사용 마약남용자 중 남성의 경우 27%, 여성의 58%가 에이즈 감염자로 보고되었으며,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아편류 마약 남용률(주로 헤로인)이 전체 인구의 0.57~0.7% 수준으로 대략 50만~60만 명이 헤로인 남용자로 파악되고 있음

### 바. 대양주

- 2007년 15~64세 인구의 0.4%인 57,000명 가량이 헤로인을 포함한 메사돈 등 아편류 남용자로 보고된 바 있고, 2008년 12~17세 학생의 1.7%가 아편류 마약경험이 있다는 설문결과가 있음
- 호주의 경우 헤로인이 주사기를 사용한 주요 남용 마약이고, 2004~2006년 감소추세 이후 점차 증가추세로 전환(2006년 27%에서 2009년 43%)되고 있으며, 모르핀 및 옥시코돈(Oxycodone)이 주요 남용 처방마약이기도 함
- 주사기를 사용하는 마약남용자 중 에이즈 감염률은 2005~2008년 1.5%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C형 간염(HCV) 감염률은 63%였으며 아편류 마약이 호주에서는 마약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15~64세 인구 100만 명 당 118.9명 수준임

### 3. 생산 동향

- 2010년 세계 양귀비 경작면적은 2009년보다 5% 증가한 195,700ha로 미얀마에서의 약 123,000ha 가량의 경작면적 증가로 인해 전 세계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미얀마의 경우 2006년 21,500ha(1996년 이후 최저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라오스의 2010년 경작면적도 전년대비 60% 가량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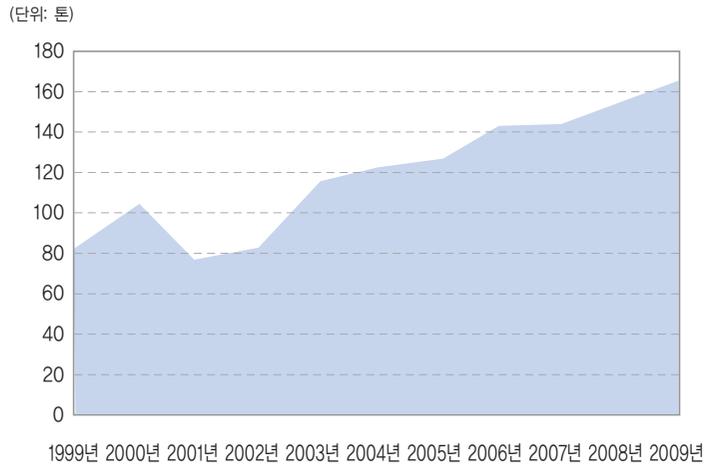
[그림 2-2] 세계 아편 생산(추정)량(2005~2010년)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 멕시코의 경작면적도 아프카니스탄, 미얀마에 이어 세계 3번째이며 2005~2009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6년 이후 경작면적 2,000ha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경우 Balochistan 및 Sindh주(州)는 물론 대부분 FATA(Federally Administrated Tribal Area, 부족연합자치지구)지역을 중심으로 경작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세계 아편생산량이 40% 이상 급증함에 따라 UNODC는 아프카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정부와 공동으로 양귀비 경작지에 대한 감시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기도 하고, 2010년에는 아프카니스탄에서의 양귀비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 생산량이 38% 이상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아프카니스탄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UNODC는 예측하고 있음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4. 밀매 동향



[그림 2-3] 세계 아편 압수량 추이(1999~2009년)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 가. 아프카니스탄 주변지역(황금의 초승달지대)

- 2009년 아프카니스탄의 아편 및 헤로인 압수량은 전 세계 압수량의 5.5% 및 2.9%를 차지(약 36톤 및 2.9톤에 해당)하고, 이란의 아편 압수량은 2009년 세계 아편 압수량의 89%를 차지하면서 증가추세이며, 특히 이란은 터키와 더불어 세계 1위 및 2위의 헤로인 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9년의 경우 이란에서는 25톤(2008년 23톤), 터키에서는 16톤(2008년 15톤)이 압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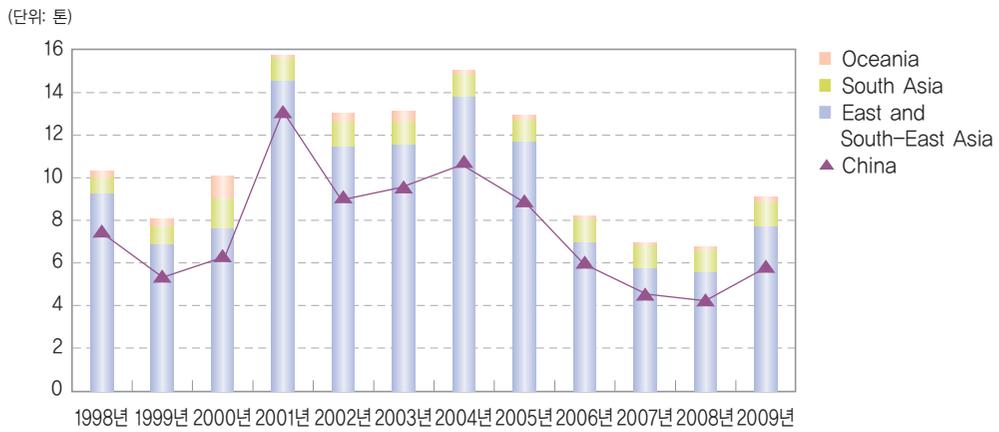
## 나. 아시아·태평양지역

- 과거 중국의 헤로인 공급원은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였으나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에서 상당량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 당국에 의하면 미얀마 북부지역에서 헤로인이 중국 북부 운남성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그 양은 2008년 2.9톤에서 2009년 3.3톤으로 증가하고 있음

제1절 아편, 헤로인

제2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 아프카니스탄에서 중국으로의 헤로인 유입량도 2008년 390kg(234건)에서 2009년 1.5톤(333건<sup>3)</sup>)으로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파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인 바, 아프카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의 헤로인 유입량은 2006년 이전 12%에서 이후 매년 40~44%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카니스탄의 아편생산 급증에 따라 잉여분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2-4]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헤로인 압수량 추이(1998~2009년)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다. 아메리카지역

- 미국의 헤로인 압수량 추세는 2007년 1.4톤에서 2009년 2.4톤이며 미국 마약청(DEA)의 분석결과, 2008년 멕시코산(産) 헤로인의 순도는 2005년 이후 최고치인 40%였으며,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압수된 헤로인 양도 2007년 404kg에서 2008년 556kg로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2009년도에는 그 양이 잠정적으로 642kg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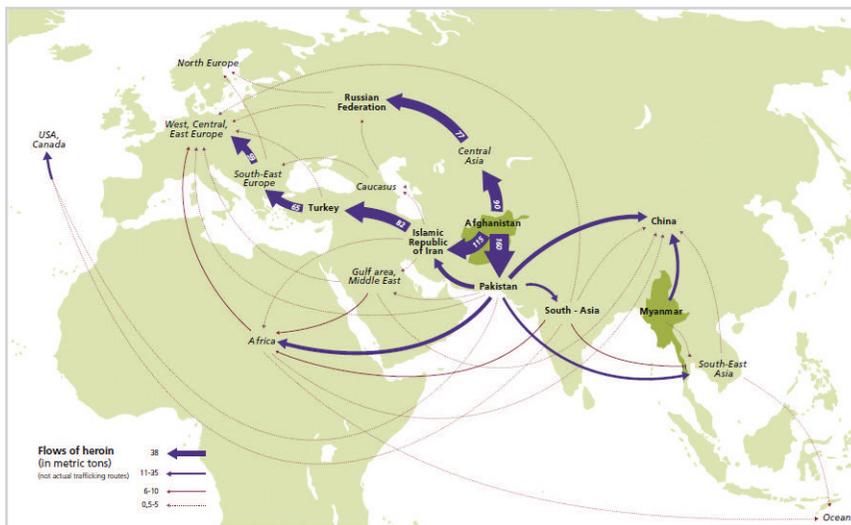
3) 2010년 제20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중국 대표단(NNCC) 발표내용 참고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09년 헤로인 압수량은 콜롬비아가 735kg, 멕시코가 283kg, 에콰도르가 177kg였으며,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2004년 658kg 최대치 이후 2009년에는 81kg에 그쳤음
- 캐나다의 경우도 헤로인 압수량이 매년 급증세인데, 2007년에는 16kg, 2008년 102kg, 2009년에는 213kg을 각 기록함

### 라. 아프리카

- 아프리카지역에서의 헤로인 압수량은 1993년 이후 최고 수준인 2008년 311kg에서 2009년 515kg로 급증추세이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매년 급증세를 보이는데 2008년 41kg에서 2009년 198kg의 헤로인이 압수되었음
- 이집트에서의 헤로인 압수량도 급증하고 있는 바, 2008년 211kg이 압수되어 아프리카 전체 압수량의 2/3를 차지할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159kg로 감소하였고, 나이지리아의 헤로인 압수량은 2007년에 121kg, 2008년 12kg, 2009년 104kg였고, 특히 나이지리아는 주로 다른 지역으로의 헤로인 밀매의 경유지로 보고되고 있음



[그림 2-5] 아프카니스탄산(産) 헤로인의 밀매경로 및 이동량 (단위: 톤)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 제1절 아편, 헤로인

[표 2-3] 세계 헤로인 암거래 가격(소매)

(단위: 미국달러/g)

연도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오스트리아	92	68	75	74	69	99	110	97
벨기에	29	31	32	31	32	33	36	33
덴마크	126	122	94	123	100	92	158	148
핀란드	188	195	195	182	125	151	235	223
프랑스	47	57	68	69	67	55	66	56
독 일	38	46	49	48	46	48	53	51
그리스	45	65	51	31	75	75	59	54
아일랜드	179	179	248	252	251	274	294	209
이탈리아	59	63	69	68	66	66	78	72
룩셈부르크	67	45	101	102	102	96	96	96
네덜란드	35	40	57	38	38	33	53	53
노르웨이	165	198	148	220	220	240	170	170
포르투갈	41	54	52	52	52	52	49	51
스페인	61	75	81	80	78	86	92	86
스웨덴	133	128	119	149	138	185	234	201
스위스	39	48	48	48	39	42	37	46
영 국	91	100	110	93	71	101	83	69
미 국	137	133	130	130	128	131	173	157
전 세계 평균	74	82	86	80	73	77	80	72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2-4] 세계 헤로인 암거래 가격(도매)

(단위: 미국달러/kg)

연도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오스트리아	23,547	33,900	37,260	36,168	37,640	54,810	58,824	41,715
벨기에	22,229	20,960	23,040	23,336	18,820	20,554	14,706	15,991
덴마크	20,803	41,770	32,820	37,741	35,967	33,091	52,335	49,066
핀란드	51,804	51,800	68,314	69,192	69,192	54,810	58,824	58,824
프랑스	23,547	28,250	31,050	31,450	35,550	34,246	36,743	17,385
독일	20,325	21,510	25,723	25,765	22,510	25,810	26,471	26,717
그리스	17,425	18,650	17,540	14,782	19,450	19,450	22,413	21,205
아일랜드	36,441	30,510	30,510	33,967	33,967	33,967	44,120	41,725
이탈리아	33,669	29,830	30,109	30,496	28,830	31,676	46,300	44,044
룩셈부르크	50,369	24,700	43,473	44,030	44,030	31,451	31,451	31,451
네덜란드	29,199	17,730	17,730	18,240	16,625	16,957	19,841	19,841
노르웨이	37,676	48,234	52,790	53,490	53,325	58,235	47,766	47,766
포르투갈	25,839	31,000	34,075	34,512	34,512	20,554	27,206	38,239
스페인	41,202	48,420	46,350	47,055	47,371	47,671	50,697	46,621
스웨덴	34,738	41,900	31,648	35,970	35,970	37,059	57,508	57,508
스위스	19,149	22,340	23,580	25,420	21,470	23,180	25,584	25,190
영국	30,620	34,340	39,041	33,249	28,320	27,163	29,569	24,628
전 세계 평균 (미국달러/그램)	34	35	37	35	33	33	36	31

##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단위: 명)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검거인원	2	1	1	1	1	0	0	18	5	0
압수량(g)	1,078	7	12	9	18	0	0	1,914	81	0

- 1970년대 초에는 매년 적지 않은 양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상당한 국내 사용자가 있었으나, 최근 10여 년간은 내국인 사용사범이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음
- 1990년대 초반까지는 태국 등 동남아에서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간 경유지로 이용될 뿐이었음. 1997년 이후부터는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로부터 직접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어 왔으나, 2007년도와 2008년도엔 적발 사례가 없다가 2009년도에 대량 적발되었고, 2010년도에 적발 건수 등이 감소하였다가 2011년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음
- 헤로인은 1990년대 초반에는 나이지리아인이나 홍콩인 등 주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운반되다가 1994~1997년에는 황금의 삼각지대의 마약밀매조직인 쿤사조직과 연결된 내·외국인들에 의해서 밀반입되었고, 1998년에는 태국 마약밀매조직이 주한 외교관사의 외국인 가정부와 공모, 태국으로부터 대량의 헤로인을 우편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한 뒤 이를 다시 미국으로 밀반출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02년에는 방글라데시인들이 본국으로부터 헤로인 1,077g을 밀반입하였음
- 특히 2001. 7. 3회에 걸쳐 헤로인 원료물질인 무수초산을 직물로 위장, 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07. 9.경부터 2008. 3. 22.경까지 무수초산 약 15.48t을 수출용 폐 탱크로리 차량의 탱크 등에 은닉, 부산항을 통해 이란을 경유 아프가니스탄에 밀수출한 사건과 2008. 3. 2. 무수초산 약 2.8톤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을 시도한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2007. 4. 7.경부터 2008. 2. 27.경 무수초산 50톤을 5회에 걸쳐 과산화수소로 위장하여 파키스탄으로 밀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2009. 2. 13.경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5톤을 섬유로 위장하고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08. 7. 2.경 무수초산 12톤을 엔진오일로 위장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이란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으며, 2009. 8. 17.경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10.64톤을 섬유로 위장하고 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고, 2010. 4.경 아프가니스탄인 및 파키스탄인 등이 2010. 8.경 부터 2010. 4.경까지 11회에 걸쳐 무수초산 3.7톤을 중고자동차 내부의 약 100kg 가량 기름통 속에 나눠싣고, 수출용 컨테이너에 중고자동차 부품과 같이 적재하여 밀수출하였으나 미국 마약수사청(DEA)와 공조하여 아랍에미레이트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을 적발하여 부산항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 저지
- 2009년도엔 대만에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대만으로의 루트를 이용 헤로인은 운반하다가 대만 세관에서 적발 사례가 증가하자,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한국을 경유 대만으로의 루트로 변경하여 한국인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약운반책으로 활용,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된 헤로인 4.94kg을 5회에 걸쳐 밀거래한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밀반입 루트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실례임
-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의 안전지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을 범죄지로 이용, 헤로인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물질을 밀수출하였다는 점에서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마약원료물질(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음
- 최근 주요 헤로인 밀반입사건
  - 2002년 방글라데시인이 신발 밑창 등에 헤로인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사례가 두 차례 적발
  - 2003년 이란인이 헤로인 약 7g을 밀반입
  - 2004년 김○○, 남○○ 등이 2004. 10. 9. 캄보디아에서 구입한 헤로인 10.43g을 콘돔 속에 포장 후 생리대 안쪽에 착용한 상태에서 베트남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 2006년 홍콩인이 헤로인 약 18.2g을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바지 주머니에 은닉하고 홍콩 첵랍콕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2009. 2.경 대만인이 헤로인 약 370.27g을 콘돔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콘돔 4덩어리는 항문 안에, 콘돔 2덩어리는 바지 양쪽 주머니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제1절 아편, 헤로인

- 2009. 7.경 대만인 남성 3명이 헤로인 약 1.2kg을 콘돔 17개에 나누어 담고 각자의 항문 안에 5~6개 가량 은닉한 채 캄보디아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2009. 10.경 나이지리아인 피의자는 인도 델리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헤로인 334g을 어학 학습용 교재 케이스 안에 은닉한 뒤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 발송하자 이를 수령하여 밀반입
- 2010. 8.경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거주 친구가 헤로인 0.98g 및 해쉬시 3.57g을 DVD 케이스 안에 은닉한 뒤 국제특송 화물로 발송하자 이를 수령하여 밀반입

## 제2절 코카인

### 1. 세계 개요

- 2009년 코카인의 남용률은 전 세계 인구(15~64세) 대비 0.3~0.5%(1,420만~2,500만 명으로 추정)로 최근 상당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대 소비국은 미국으로 전 세계 소비량의 37%인 157톤 이상이 소비되었고, 다음으로 서유럽 및 중부 유럽지역에서 123톤 가량이 소비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서유럽 및 중부 유럽에서의 코카인 소비량이 2배 증가하였음
- 2007년 대비 2010년의 코카인 생산량은 18% 감소하였고, 2006년~2009년 기간 동안 전 세계 압수량은 안정적(2009년 압수량은 732톤)이지만 2006년 이후 압수량은 북미, 서유럽 및 중부유럽 등의 소비지역에서 남미 등 원산지지역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며, 남미지역에서 유럽지역으로 코카인을 밀매하는 서아프리카조직의 활동은 압수량으로 추정하건데 다소 감소하였지만 밀매수법이 변화하고 코카인 밀매에 대한 취약성은 여전한 것으로 보임
- 1990년 중반보다 전 세계 코카인 시장규모는 감소하여 95년 1,650억불(미화) 규모에서 2009년 그 절반인 850억불 규모임

## 2. 소비(남용) 동향

- UNODC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 인구대비 15~64세 인구의 코카인 남용률은 0.3~0.5%인 1,430만~2,500만 명으로 2008년 0.3~0.4%의 1,510만~1,940만 명에 비해 그 범위가 넓어졌는데 이는 주로 콩고 등 아프리카지역의 자료 부족으로 인한 것임
- 코카인 세계 최대 남용지역인 북미지역은 최근 코카인 남용이 감소추세이며, 2009년 570만 명 즉, 세계 코카인 남용인구의 1/3에 해당되고, 15~64세 인구 남용률은 2006년 2.4%에서 2009년 1.9% 수준으로 감소함
- 미국은 2009년 코카인의 남용인구가 약 500만 명으로 15~64세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며, 12세 이상의 코카인 최초 남용인구도 2008년 722,000명에서 2009년 617,000명으로 감소하였고, 고등학생의 남용률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캐나다의 경우 코카인 남용인구(15~64세)는 2009년 32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수준이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2004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남용인구는 0.4% 수준임
- 중남미지역에서는 코카인 남용상황이 안정적으로 2009년 15~64세 인구의 약 260만~290만 명 가량이 남용인구로 추정되고, 성인인구의 코카인 남용률은 남미가 0.9~1%, 중미지역이 0.5~0.6%이며 에콰도르와 과테말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남미 국가에서는 감소추세로 보고되고 있음
- 2009년 유럽의 코카인 남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며, 남용률은 15~64세 인구의 0.8~0.9% 수준인 약 430만~480만 명으로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였는데, 27개 유럽연합국가 및 4개 EFTA국가<sup>4)</sup>는 1998~2006년 사이 코카인 남용인구가 2배 증가하였으나 15~64세 인구의 1.2%에 달하는 남용률은 미국(2.4%)의 절반 수준임

4)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아프리카는 2009년도 자료 부족으로 정확한 추세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보에 따르면 증가 추세로 추정되는 바, 15~64세 인구의 남용률은 0.2~0.8% 수준인 94만~440만 명으로 추정되고, 특히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및 모잠비크에서는 증가추세, 나이지리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감소추세이나 케냐의 경우 12~51세 인구의 남용률은 1.2% 수준으로 파악됨
- 2009년 동(남)아시아의 코카인 남용추세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15~64세 인구의 남용률은 0.02~0.2% 수준으로 약 40만~2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홍콩과 중국에서는 코카인 남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뉴질랜드 및 호주의 경우(2009년)는 급증추세 이후 최근 안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코카인 남용률은 15~64세 인구의 1.4~1.7% 수준으로 북미지역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서유럽 및 중부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임

### 3. 생산 동향

- 콜롬비아의 2010년 코카 경작면적은 전년대비 15%이상 감소(2009년 73,000ha에서 2010년 62,000ha)하였으며, 코카인 생산량은 2010년 350톤으로 감소함
- 페루는 2010년 전년대비 2%(+1,300ha) 증가한 61,200ha로 안정적인 코카인 경작량을 나타내며, 코카인 생산량은 2005년 이후 증가추세임
- 볼리비아의 경우 코카인 생산량(추정치)은 2005~2009년 증가추세로 대략 2007년 이후 볼리비아의 밀제조시설은 콜롬비아로부터 제조기술을 전수받아 코카인에서의 코카인 추출이 더욱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표 2-5] 세계 코카나무 경작 면적(추정치)

(단위: 헥타)

연도별 국가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볼리비아	23,600	27,700	25,400	27,500	28,900	30,500	30,900	30,900
콜롬비아	86,000	80,000	86,000	78,000	99,000	81,000	68,000	57,000
페 루	44,200	50,300	48,200	51,400	53,700	56,100	59,900	61,200
합 계	153,800	158,000	159,600	156,900	181,600	167,600	158,800	149,100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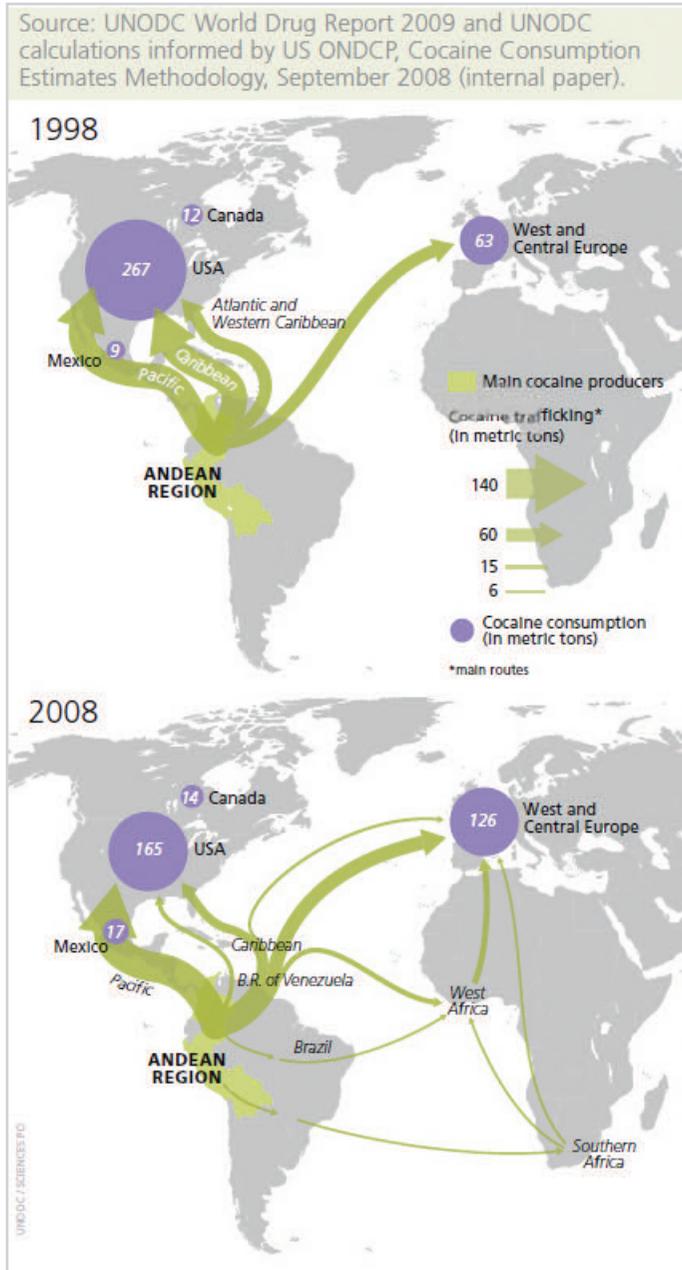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4. 밀매 동향

- 코카인의 세계 압수량에 의하면 2000~2005년 사이에는 증가추세를, 2006~2009년 사이에는 안정적 추세를 형성하면서 2007년에는 최소 690톤이, 2009년에는 최대 732톤이 각 압수되었음
- 2006년 이후에는 북미나 서부 및 중부 유럽의 소비지에서 남미의 원산지로 압수량이 이동 중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2006년의 경우 세계 코카인 압수량의 44%인 317톤이, 2009년에는 60%인 442톤이 남미지역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거의 1/3 수준으로 압수량이 감소한 북미 지역에서는 2006년 194톤에서 2009년 132톤으로 감소하였고, 서부 및 중부 유럽지역에서는 2006년 121톤에서 2009년에는 55톤으로 감소하였음
- 2008~2009년 아메리카지역은 2008년에는 656톤, 2009년에는 673톤으로 세계 코카인 압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은 콜롬비아 및 미국에서 발생하였는데, 대량의 밀거래 루트는 남미에서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우로 콜롬비아는 2002~2009년 세계 최대의 코카인 압수량을 차지(2008년 256톤에 이어 2009년에는 253톤을 기록)하였고, 특히 2009년 압수량의 48% 이상은 해상에서 압수가 이루어졌다고 콜롬비아 당국은 밝히고 있음

제2절 코카인

제2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그림 2-6] 세계 코카인 이동 양상(1998년 및 2008년 대비) (단위: 톤)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08년 볼리비아에서도 상당량의 코카인 압수가 있었고, 이후인 2009년에는 27톤, 2010년에는 29톤을 각 기록하였으며, 2009년 코카인 밀매의 95%가 내륙에서 발생하였으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와의 국경지역에서의 밀매도 간혹 발생하기도 하였음
- 콜롬비아 및 페루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단속 당국에 따르자면 2009년 남미지역 2위 규모로 65톤의 코카인을 압수하였으며, 콜롬비아는 최근 대량의 코카인 경유지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고, 베네수엘라는 2005년 59톤의 압수량을 최고치로 기록한 이후 2009년 압수량이 28톤으로 급감하였고, 2010년에는 압수량이 20톤으로 예상하고 있음
- 미국으로의 코카인 주요 경유지인 멕시코의 경우, 코카인 압수량이 2007년 48톤에서 2008년 19톤으로 급감하였다가 2009년 다시 22톤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3/4이상이 해상에서 압수됨
- 미국은 2005년 코카인 201톤이 압수되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09년에는 상당량 급감하여 2005년 절반 수준인 109톤이 압수되었으나 그램당 암거래가격은 2006년 1/4분기에 90불(미화)에서 2008년 4/4분기에는 199불로 거의 2배 급증하였고, 이후 2009년 4/4분기 현재는 170불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순도변화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2006년 70%, 2008년 45%, 2009년 46%)
- 세계 2위의 코카인 소비지역인 유럽은 2006년 최대 압수량인 121톤 이후, 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57톤을 기록하였고, 유럽 코카인 유입의 관문인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의 경우는 최근 압수량 급감(2006년 50톤에서 2009년 25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카인이 압수되고 있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로 2006년 34톤에서 2009년 2.7톤으로 급감하였으며 네덜란드의 경우도 2005년 14.6톤에서 2008년 6.8톤으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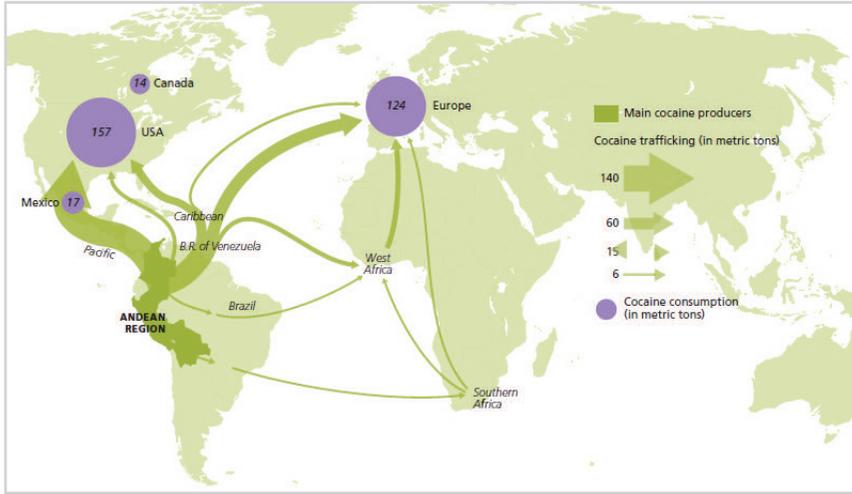
## 제2절 코카인

- 최근 아프리카지역의 코카인 압수량 추이는 2007년 5.5톤, 2008년 2.6톤에 이어 2009년에는 1톤 미만이고, 특히 서아프리카지역의 벤닌, 에디오피아, 가나, 케냐, 말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 토고 등이 2008~2009년 주요 코카인 밀매경유지로 알려짐
- 2008년 주요 압수량은 가나 841kg, 시에라리온 703kg, 토고 393kg, 남아공 156kg 등이었고, 남아공 당국은 2009. 1. 29. 코카인 230kg을 더반(Durban)항(港)에서 압수한 바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의 단속시스템<sup>5)</sup>에 따르면 세네갈에서도 2009년 30kg이 압수되었다고 함
- 세계 코카인 압수량의 1% 미만을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지만 2008년 1.6톤이, 2009년에는 766kg이 각각 압수되었고, 호주의 경우 2007년 626kg과 2008년 930kg에서 2010년에는 700kg로 감소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2008년에는 664kg, 2009년에는 163kg이 압수되었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코카인은 중국 당국에 따르면<sup>6)</sup> 남미에서 태평양을 거쳐 중국 동남부지역 해안도시를 통해서라고 밝힘
- 필리핀의 경우 2003~2008년 기간 동안 연 코카인 압수량이 3kg 미만이었지만 2009년 259kg이 압수되었는데, 이와 같이 증가하게 된 주요 요인은 2009. 12. 대량의 코카인이 남미에서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필리핀 Eastern Samar지역에서 투하되었고 15.5kg이 Davao지역 압수건이라고 함

5) Customs Enforcement Network(CEN)

6) 2010년 제20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중국 금독위원회(National Narcotics Control Commission) 발표자료 참고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2-7] 세계 코카인 주요 흐름도(2009년) (단위: 톤)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 제2절 코카인

[표 2-6] 세계 코카인 암거래 가격(소매)

(단위: 미국달러/g)

연도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오스트리아	71	90	103	101	78	99	110	97
벨기에	50	51	51	51	60	67	72	71
덴마크	91	122	82	82	81	74	99	93
핀란드	111	151	146	125	100	110	154	139
프랑스	75	90	99	94	97	96	103	83
독 일	57	68	73	79	74	86	91	87
그리스	75	96	93	79	110	110	110	104
아일랜드	94	79	87	88	88	96	103	97
이탈리아	90	101	113	114	104	112	111	99
룩셈부르크	107	96	114	105	106	89	89	89
네덜란드	33	50	59	59	60	59	63	63
노르웨이	165	170	155	155	151	164	154	154
포르투갈	36	47	49	55	56	55	66	66
스페인	56	70	76	76	79	83	89	83
스웨덴	87	99	93	92	101	96	138	104
스위스	74	89	86	86	74	75	65	82
영 국	84	90	91	79	87	91	74	62
미 국	83	90	84	85	94	104	119	120
전 세계 평균	85	97	100	95	91	95	94	85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표 2-7] 세계 코카인 암거래 가격(도매)

(단위: 미국달러/kg)

연도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오스트리아	42,385	59,300	55,894	59,757	50,185	61,661	66,176	48,668
벨기에	28,111	29,610	32,480	32,480	32,480	47,958	53,757	46,675
덴마크	37,823	53,160	45,896	50,321	40,520	40,445	43,447	40,730
핀란드	51,804	62,150	68,315	68,315	56,611	61,660	66,176	62,573
프랑스	37,676	45,200	49,683	50,321	50,190	61,661	44,118	41,715
독 일	34,476	40,110	44,243	46,525	45,320	48,826	54,114	57,171
그리스	42,385	53,680	57,446	62,902	62,735	62,735	69,853	63,964
아일랜드	29,891	30,510	38,557	38,506	39,636	41,107	44,118	36,161
이탈리아	41,412	47,440	51,759	52,188	52,920	56,029	63,514	57,153
룩셈부르크	47,718	47,718	31,052	31,450	34,450	31,451	34,451	31,451
네덜란드	27,500	27,400	33,775	33,775	35,000	42,409	46,691	46,691
노르웨이	54,159	56,500	65,209	65,209	56,400	61,661	51,471	51,471
포르투갈	31,046	32,410	36,399	36,399	31,365	34,256	44,118	41,716
스페인	31,511	38,830	42,167	41,321	41,210	46,274	48,709	45,941
스웨덴	35,763	43,130	39,560	40,068	39,270	51,883	72,844	45,459
스위스	19,274	37,230	44,008	44,008	41,090	44,351	49,307	50,379
영 국	35,848	40,880	50,036	50,036	50,943	60,362	64,682	76,963
미 국 (미국달러/그램)	24	24	24	24	23	23	26	27
전 세계 평균 (미국달러/그램)	43	49	53	52	50	55	55	55

## 5. 국내 유통추세

[표 2-8] 국내 코카인 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

(단위: 명)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검거인원	2	2	6	5	7	4	7	9	0	4
압수량(g)	1,170	905	8	0	4,772	79	8,869	298	0	2,153

- 코카인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피검거자의 불법사용 개시 시기로 보아 198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음
- 1988년 10월초 소위 '얼굴 없는 코카인 사건' 으로 미국으로부터 서울시내 호텔에 투숙 중인 올림픽 관광객에게 발송된 코카인 10g을 처음으로 압수(서울중앙지검)하였으나 수령인이 소유관계 부인한 후 출국함
- 코카인 밀매사범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는 1990. 2. 21.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박○○ 사건(150g 압수)이고, 1990. 9. 20.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제 코카인 및 에메랄드 밀수조직 사건에서 코카인 976g을 압수함
- 그동안 코카인은 주로 남미교포나 남미인들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 등 제3국으로 밀수출하였으나, 2005년도에 한국 어학연수생들이 홍콩삼합회의 운반책으로 고용되어 코카인 20kg을 일본, 호주 등지로 수출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6년도에는 인천공항을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4kg(시가 120억원 상당)을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 되었고, 2008년도에는 브라질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코카인 8.8kg(시가 258억원 상당)을 밀수하려 한 일본인 운반책 3명을 적발하는 등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2009년도에는 외국인 영어강사가 미국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58.34g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고, 이 외에도 기타 마약이 원어민 강사들에 의해 밀수 및 투약이 폭넓게 퍼져 있는 것을 적발하였는데, 이들은 마약 투약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학생들에 대한 마약 전파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무분별한 외국인 강사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10년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으나 2011년도에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을 출발 파나마를 경유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 2.1kg이 적발되는 등 다시 한국을 밀수출의 경유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2004년도 국내 코카인 밀수사건
  - 내국인 ‘오○○’ 사건 (2004. 6. 17. 인천지검)
 

2004. 6. 14.경 미국 뉴욕 거주 성불상 다○로부터 비타민제 용기 속에 코카인 4g을 은닉 후 페덱스 국제특송 화물편으로 인천국제항공을 통해 밀반입
  - 내국인 ‘음○○’ 사건 (2004. 11. 30. 서울중앙지검)
 

2004. 11. 8.경 미국으로부터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1g을 밀수입, 같은 달 29.경 코카인 2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사건특징 : 미국 유학중 코카인 중독, 압수된 코카인은 ‘크랙’ 이라 불리며, 보통의 코카인보다 약효가 몇 배 강하고, 중독성이 높은 마약임)
  - 내국인 ‘전○○’ 사건 (2004. 12. 1. 인천지검)
 

2004. 12. 1.경 미국 거주 불상자로부터 국제소포를 통해 코카인 약 0.5g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 2005년도 코카인 밀거래사건
  - ‘한국인 어학연수생 개입 캐나다산 코카인 밀거래’ 사건 (2005. 5. 수원지검)
 

2004. 4~5.경 사이 한국계 캐나다 시민권자 김○○는 홍콩의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 캐나다지부 하부 조직원(추정)으로 한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코카인 20kg을 호주, 일본 등지로 밀수출
- 2006년도 코카인 밀수출사건
  - ‘코카인 4kg 밀수출 네덜란드인’ 사건 (2006. 3. 29. 인천지검)
 

2006. 3. 27.경 네덜란드 국적(원적: 가봉)의 흑인 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범 앤○으로부터 코카인 약 4kg(시가 120억원 상당)을 은닉한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

- 2007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김○○ 사건 (2007. 5. 인천지검)

2007. 4. 경 피의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리)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원두커피 봉지 속에 코카인 약 3.2g을 은닉하여 미국 LA발 인천행 화물항공기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밀수입

- 2008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코카인 5.2kg 밀수출 일본인’ 사건 (2008. 9.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일명 ‘크○○○(나이지리아계 흑인으로 추정)’로부터 모든 여행경비 및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피의자 사○○○○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일명 ‘잭○’이 건네주는 마약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아 대한항공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피의자 다○○○○는 대한민국에서 사○○○○를 만나서 위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 크○○○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08. 8. 13. 경 사○○○○는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잭○으로부터 교부받은 코카인 5.2k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신고 2008. 8. 14.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여 밀수입

- ‘코카인 3.6kg 밀수출 일본인’ 사건 (2008. 9. 인천지검)

피의자는 나이지리아 국적 추○○○○○○○○로부터 모든 여행 경비 및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이 건네주는 마약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일본 항공편으로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다른 일본 항공편으로 환승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위 추○○○○○○○○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을 서울에서 만나 위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고 동인이 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 위 추○○○○○○○○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여, 2008. 9. 12.경 피의자는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3.6k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신고 2008. 9. 14.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여 밀수입

- 2009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외국인 영어강사 하○○○○○○사건 (2009. 9. 인천지검)

2009. 9.경 피의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핏 ○○○○와 공모하여 위 핏 ○○○○가 미국 애리조나주 템파에서 플라스틱 지퍼백 안에 코카인 58.34g을 은닉하고 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고, 피의자가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 2011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외국 선박에서 대량의 코카인 적발사건 (2011. 4. 부산지검)

2011. 3.경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을 출발하여 파나마를 경유, 같은 해 4.경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에 코카인 2.1kg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였는데, 세관의 통보로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하였고, 파나마에서 하선한 밀항자가 제3국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유류한 것으로 추정

- 대학교 휴학생 이○○ 사건 (2011. 12. 서울북부지검)

피의자는 2011. 1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의자의 거주지 내 책상 서랍에 코카인 46.6g을 넣어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1. 세계 개요

-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이며 암페타민류 그룹과 엑스터시 그룹으로 구분하여 볼 때, 2009년 각각의 남용률(전 세계 15~64세 인구 대비)은 0.3~1.3%인 1,400만~5,700만 명 및 0.2~0.6%인 1,100만~2,8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암페타민류 그룹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엑스터시 그룹은 유럽과 대양주 지역에서 주로 남용되고, 북미의 경우 두 그룹의 마약 남용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밀조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밀조시설은 대다수가 밀매시장에 인접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은 지역 간 빈번한 밀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한 해 동안 약 10,600개의 암페타민류 각성제 관련 밀조시설이 적발되었으며 대부분은 메스암페타민 밀조시설로 미국에서 적발됨
- 2009년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전 세계 압수량은 40% 이상 증가한 31톤의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으로 2007년 최고치를 다소 경신했고 암페타민 경우 10% 증가한 33톤, 엑스터시의 경우 2008년 대비 감소한 5.4톤이었음
- 동(남)아시아지역의 암페타민류 각성제 시장은 메스암페타민 남용의 상당한 증가에 따라 확대되었고,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는 주요 남용마약으로 보고되고 있음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아프리카는 2008년 말 최초 보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의 암페타민류 각성제 밀매 주요 관심지역으로 특히 서아프리카지역은 원료물질의 경유지역임은 물론 유럽, 서아시아, 동아프리카지역을 경유하여 동아시아로 유입되는 암페타민류 각성제 밀매의 새로운 원산지임
- 인도는 2003년 최초로 암페타민류 각성제 밀조시설이 적발된 이후, 지속적인 적발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도 밀조 시도가 보고되고 있으며, 남아시아지역은 메스암페타민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의 주요 원산지로 등장하고 있음

## 2. 소비(남용) 동향

### 가. 암페타민류 마약

- 2009년 UNODC 추정 15~64세 세계 인구 중 0.3~1.3%인 1,370만~5,640만 명이 암페타민류 마약 남용인구로 추정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메스암페타민 형태로, 중동지역에서는 알약 형태의 캡타곤(Captagon)으로 남용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용됨
- 대양주, 북미지역, 남미지역, 아프리카에서는 처방각성제<sup>7)</sup>가 주로 남용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메스암페타민 및 메스케치논(methacathinone)이 주요 남용마약이었고, 동(남)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암페타민류 각성제 증가추세로 보고되는 실정이며, 특히 그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sup>8)</sup> 회원국보다 비회원국에서 더욱 높은 편임
- 북미지역의 암페타민류 마약은 미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는 증가추세이고, 캐나다는 감소추세이며, 북미지역은 약 350만 명 이상의 남용인구가 살고 있고, 남용률은 15~64세 인구의 약 1.1% 수준임
- 특히, 미국의 경우는 2009년 15~64세 인구의 약 1.5%가 암페타민류 마약의 남용자로서 2002~2006년 기간 동안 12세 이상 인구의 암페타민류 마약 남용은 소폭 증가하였다가 2007~2008년 사이에는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2002~2006년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는데, 2009년 12세 이상 인구 중 메스암페타민 남용인구는 154,000명으로 이는 2008년 95,000명, 2002년 299,000명과는 차이가 크며, 멕시코의 경우 2009년에는 암페타민은 안정적 추세를 보였으나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음
- 남미지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암페타민류 마약의 남용추세(2009년)는 안정적이며, 15~64세 인구의 남용률은 0.5~0.7% 수준으로 134만~189만 명이 남용인구로 추정되고, 특히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에서 남용이 심각함

7) amfepramone, fenetyline, methylphenidate, phenmetrazine 등을 포함

8)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유럽지역은 암페타민류 마약 남용추세는 안정적이지만 주사기 이용 암페타민의 남용은 심각한 편으로, 2009년 유럽지역의 남용률은 0.5~0.6% 수준으로 260만~330만 명이 남용인구로 추산되고 있음
- 아프리카지역은 2009년 암페타민류 마약의 남용률이 0.2%~1.4% 수준으로 남용인구가 약 120만~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남아프리카지역의 경우 15~64세 인구의 남용률이 0.4%~1%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2008년 15세 이상 인구의 남용률이 0.7%였고, UNODC에 따르면 2009년 15~64세 이상 인구의 남용률 추정치는 0.7%~1.4%로, 특히 'tik'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케이프타운(Cape Town)지역에서 주요 남용마약임
- 아시아지역에서는 암페타민류 마약이 증가추세로 보고되고 있고 주사기 사용 메스암페타민의 남용문제는 동(남)아시아지역에서 특히 보건 문제화되고 있는데, 2009년 암페타민류 마약의 남용률은 0.2%~1.4% 수준으로 15~64세 인구의 남용인구는 400만~3,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정제형(pill) 또는 결정형(crystalline)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2.1%, 태국이 1.4%, 라오스가 1.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남용률을 보이고 있고 메스암페타민관련 검거 건수는 2004년 대비 2009년에는 250% 증가하였는데 라오스의 검거 건수 증가율이 최고였고, 일본의 경우는 감소하였다고 보고<sup>9)</sup>됨
- 2009년 동(남)아시아지역의 주사기 사용 마약남용자 대비 C형 간염 감염률은 마카오가 50%, 인도네시아, 미얀마, 홍콩이 80% 이상이라고 보고됨
- 대양주의 경우 암페타민류 마약의 남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감소추세인 바, 대양주의 경우 2009년 15~64세 인구의 남용률은 2%~2.8%로 특히 마셜군도와 호주가 2.7%, 뉴질랜드가 2.1% 수준이고, 호주의 경우 14세 이상 인구의 암페타민류 마약(암페타민 및 메스암페타민) 남용률은 2001년에 3.4%에서 2007년에는 2.3%로 감소하였고, 12~17세 학생인구의 남용인구는 2002~2005년 대비 2008년에는 급감하기도 하였음

9) UNODC Patterns and Trends of Amphetamine-Type Stimulants and Other Drugs, Asia and Pacific, Global SMART Programme 2010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나. 엑스터시류 마약

- 엑스터시류 마약은 MDMA 및 그 유사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젊은 층의 유흥과 관련되고 이러한 엑스터시 남용이 반드시 다른 불법마약 남용으로 발전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최소한 그런 불법마약 남용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2009년 전 세계 엑스터시류 마약의 남용률은 15~64세 인구 중 0.2~0.6% 수준으로 약 1,100만~2,800만 명이 남용하고 있을 것으로 UNODC는 추정하고 있음
- 아메리카의 약 83%, 유럽의 54%, 아프리카의 67% 국가에서 2009년 엑스터시류 마약의 남용이 안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고, 특히 아시아지역의 경우 47%의 국가가 남용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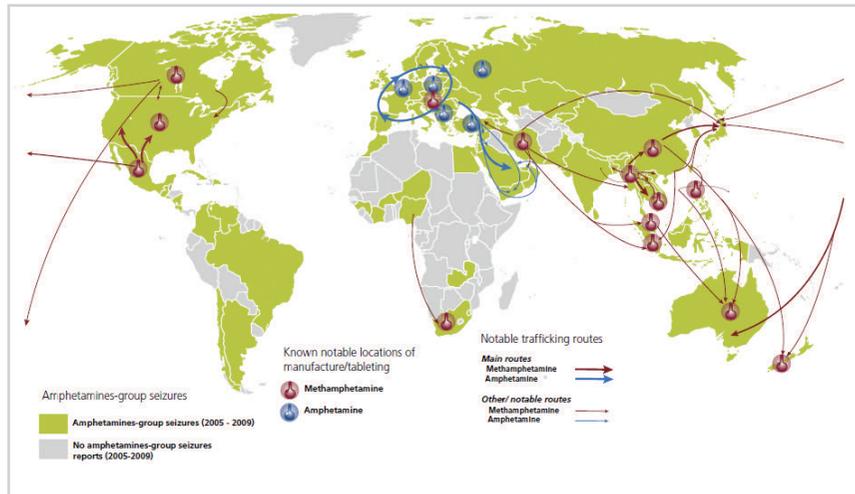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3. 생산 동향

- 암페타민류 각성제 밀조시설은 대부분 소비시장에 인접한 반면, 원료물질은 지역 간에 빈번하게 밀거래되고 있는데 특히 암페타민류 각성제 밀조시설의 적발건수가 2008년 8,400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26% 증가한 10,600건이 보고(최고치는 2004년 19,800건)되었는바, 이러한 밀조시설은 주로 북미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특히, 멕시코의 경우 2009년 191건, 2010년 5월 현재 63건의 밀조시설 적발 건수가 보고된 바 있고 이는 2008년 21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추세로 특이점은 적발 건수에 비해 제조시설이 대규모라서 생산량도 많은 편인데, 반면 미국의 경우는 멕시코와는 달리 적발 건수는 많으나 생산시설의 규모가 대부분 소규모라 생산량이 많지 않음
- 동(남)아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공장 규모인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적발 보고도 있었고, 중국은 2009년 391건의 적발 건수가 Guangdong(광둥), Sichuan(쓰촨) 및 Hubei(후베이) 등이었다고 보고되었음
-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2009년 25건의 대규모 밀조시설 적발을 포함하여 총 35건의 적발 보고가 있었고, 말레이시아는 2009년 쿠알라룸푸르 및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1건의 밀제조시설의 적발 보고가 있었으며, 필리핀은 1996년 최초 적발보고 이후 1997년 공장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대규모 밀조시설이 처음으로 적발되었고, 2009년에는 9건의 밀조시설 적발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추세는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이른바, 'Kitchen type')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필리핀 당국은 밝히고 있음<sup>10)</sup>

10) 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PDEA)를 통해 확인 내용임(2010.10.)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그림 2-8] ATS 주요 밀조시설 위치 및 유통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 최근에는 미얀마에서의 정제형 메스암페타민 밀제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태국 당국은 이른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지역에 최소 12개 이상의 대형 밀제조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밀제조시설에 대한 적발은 1995년 이후 거의 사라진 상황이지만 2010년의 경우 밀조혐의로 이란인 2명을 검거하기도 하였음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1988년 유엔협약 등 국제적 규제물질인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의 압수량이 증가추세이며, 특히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보고에 따르면 2008년 에페드린 18.2톤, 슈도에페드린 5.1톤에서 2009년에는 각 41.9톤 및 7.2톤으로 증가하는 등 대량의 원료물질이 메스암페타민 불법제조를 위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에 대한 통제강화에 따라 노르에페드린(Norephedrine) 및 마황(Ephedra plant) 등 간단한 처리공정만으로도 원료물질로 전환이 가능한 대체 물질의 밀거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림 2-9]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 전용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 4. 밀매 동향

- 2009년 세계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2008년 대비 16% 증가한 수준으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각각 31톤(2008년 22톤)과 33톤(2008년 30톤)이었고, 엑스터시의 경우 2008년 대비 소폭 감소한 5.4톤이었음
- 지역별로는 유럽의 엑스터시 압수량은 2007~2009년 기간 동안 급감한 반면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은 2009년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북미지역은 메스암페타민 및 엑스터시가 주종인 암페타민류 각성제였으며, 중남미지역에서는 대부분 암페타민류 마약이 압수되었지만 엑스터시도 여전히 상당량 압수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서는 암페타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캡타곤(captagon) 압수량이 상당했고, 아프리카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대부분의 압수량을 차지하였음
- 이란의 메스암페타민 압수량 증가추세는 2005년 이후 시작되어 2010년 1월~10월 사이 압수량 만도 883kg으로 2009년 571kg에 비해 급증추세임은 물론 이란 당국(Drug Control Headquarters)도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1% 가량만 이란 국내에서 생산되고 대부분은 북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부 및 서유럽에서 유입된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란의 2009년 슈도에페드린 수요량은 55톤으로 세계 4위 수준으로 태국 당국에 따르면 이란인 마약밀매조직의 메스암페타민 밀매가 일본,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한국 등지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함
- 아시아지역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및 중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메스암페타민 제조, 밀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9년 동(남)아시아지역의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은 2008년의 11.6톤에서 15.8톤으로 증가하였고, 밀매경로도 최근에는 다양해지는 추세로 아프리카 및 이란에서의 유입이 증가하기도 함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중국은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연 압수량은 6.1톤~6.8톤 규모로 2009년 6.6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적 추세로 알려져 있고, 중국 당국(국가금독위원회, NNCC)에 따르면 상당량의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이른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에서 Yunnan(운난)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미얀마는 메스암페타민의 압수량이 2003~2008년 평균 528kg에서 2009년에는 상당량 증가한 3.4톤을 기록하였고 이는 미얀마 당국의 단속강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태국의 경우에도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제형 메스암페타민(일명 Yaba) 압수량의 최근 추이를 보면 2007년 1,400만 정, 2008년 2,200만 정, 2009년에는 2,700만 정이었고, 결정형(crystalline) 메스암페타민의 압수량은 2007년 47kg, 2008년 53kg, 2009년 209kg으로 정제형 메스암페타민과 마찬가지로 증가추세로 파악되고 있으며, 태국 당국<sup>11)</sup>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다른 불법 마약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지만 메스암페타민만은 주로 주변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고, 태국이 경유지로도 이용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고 함

11) 태국 마약단속위원회(Office of the Narcotics Control Board)

## 5. 국내 유통추세

가. 1989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에 검거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공급조직은 683 개파 2,792명임

- 범죄유형별

(기간: 1989~2011)

구분		조직수	검거인원
염산에페드린 (원료밀수입)		11	59
메스암페타민	제조	31	185
	밀수	267	681
	밀매	374	1,867
계		683	2,792

- 청별

(기간: 1989~2011)

청별	조직수	검거인원
서울중앙지검	237	1,002
부산지검	104	514
기타	342	1,276
계	683	2,792

※ 인천지검(2011년도) : 5개파 12명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나. 마약류 밀조 추이

- 1980년대까지 한국이 주요 메스암페타민 밀조 국가로서 전 세계 메스암페타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바 있으나, 1990년대 들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메스암페타민 밀조 조직이 거의 와해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산 메스암페타민이 밀반입되고 있음

## 다. 메스암페타민 밀거래가격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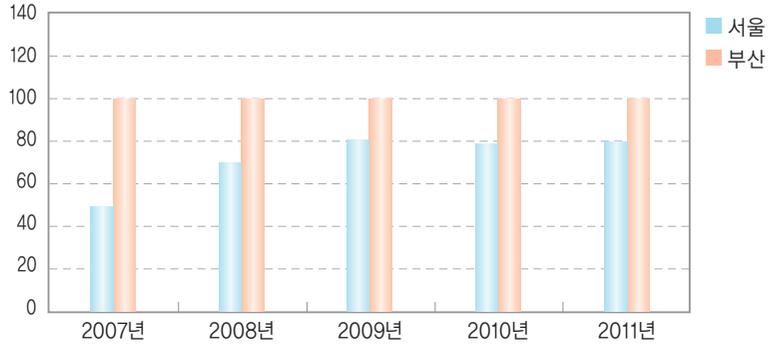
- 검찰의 단속활동이 체계적으로 개시되기 전인 1988년경 5,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되던 1회 사용분 메스암페타민의 가격은 검찰의 단속활동이 강화되자 1991년경부터 10배 이상 폭등하였으나, 2000년에는 유통물량의 급증과 공급사범들의 박리다매 전략으로 g당 소매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다가 2004년부터 다시 상승하였고, 1회 사용분의 가격은 2001년부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2-9] 메스암페타민 연도별 밀거래가격

(단위: 만원)

구분 \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당	서울	40	30	130	90	90	50	70	80
소매	부산	16	46	4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회	서울	10	10	9	9	9	10	10	10	10	10
사용분	부산	10	6	10	10	10	10	10	10	10	10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그림 2-10] 메스암페타민 g당 소매 및 1회분 가격 추이

라. 향정사범<sup>12)</sup> 추이

[표 2-10]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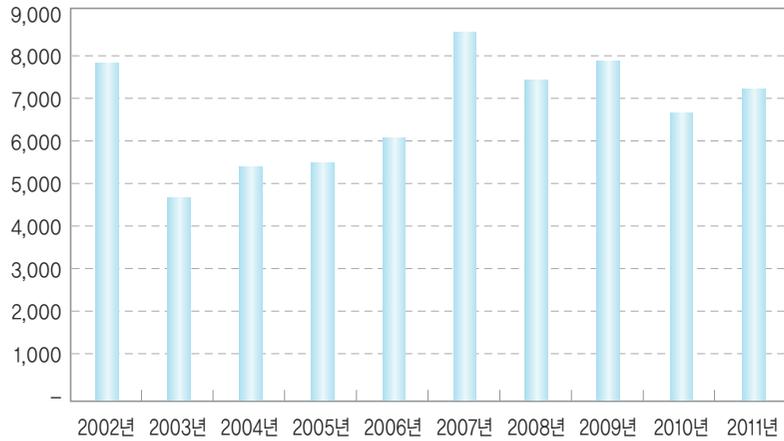
(단위: 명)

품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속인원	7,918	4,727	5,313	5,354	6,006	8,521	7,457	7,965	6,771	7,226
증감률(%)	-0.5	-40.3	12.4	0.8	12.2	41.9	-12.5	6.8	-15.0	67

-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던 향정사범은 1999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3년에는 전년대비 40.3% 대폭 감소한 이래 2004년부터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도 부터는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2011년도에도 향정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78.7%를 점유하여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

12) 암페타민류 각성제(ATS)로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포함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2-11] 행정사범 추세

## ● 2007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 김○○ 사건 (2007. 2. 전주지검)

2007. 1. 중국 연길시에 거주하는 일명 박사장에게 환치기 계좌를 통해 탁송비용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10.2g을 감비차에 은닉하여 국제항공 화물편으로 밀반입

## - 윤○○ 등 밀수 사건 (2007. 3. 서울중앙지검)

2007. 2. 피의자들은 필로폰 약 340g을 연필꽃이와 알약 캡슐 305개에 0.4~0.5g씩 나누어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밀반입

## - 딸○○ 아○○ 밀수 사건 (2007. 3. 서울중앙지검)

2007. 3. 피의자들은 같은 필리핀 국적의 카○○○ 알○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산토스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종이박스 속에 필로폰 약 16.7g을 생선 등과 같이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밀반입

## - 린○ 사건 (2007. 4. 서울중앙지검)

2007. 4. 중국 거주 조선족인 아○이 필로폰 9.5g 등을 소포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여 밀반입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오○○ 사건 (2007. 4. 수원지검)
 

2007. 4. 9. 피의자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채○○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00g을 피의자들의 중국산 등산화 3켤레의 밑창 속에 나누어 넣은 후 등산화를 신고 평택항으로 밀반입
- 방○○ 사건 (2007. 4. 서울북부지검)
 

2007. 4. 9. 탈북자인 피의자가 필로폰 123g을 인천항으로 밀반입하여 같은 피의자 김○○에게 교부
- 송○○ 사건 (2007. 4. 서울중앙지검)
 

2007. 4. 10.경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110g을 약 5~6g씩 나누어 검은 먹지로 감싼 후 비닐로 포장하여 우황청심환 환약용기 20개에 나누어 담아 발송하고, 피의자가 이를 수령하여 밀반입
- 국제폭력조직 연계 사건 (2007. 4. 인천지검)
 

2006. 11. 피의자 윤○○은 일본 야쿠자(아마구치파)로부터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필로폰이 도착하면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 대련에서 명불상 '최사장' 이 보따리상을 통하여 인천항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100g를 밀반입
- 슈도에페드린 밀수 사건 (2007. 4. 서울중앙지검)
 

2007. 4. 중국인 왕○ 등은 필로폰 제조 물질인 슈도에페드린과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염이 혼합된 물질 약 12kg을 국제우편으로 수취하여 밀반입
- 김○○ 사건 (2007. 5. 서울중앙지검)
 

2007. 5. 18. 공모자인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962g을 비닐봉지 16개에 각각 넣어 이를 타이어 모양 벽걸이 시계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여 밀반입
- 김○○ 사건 (2007. 5. 천안지청)
 

2007. 5. 피의자는 공범 이○○와 공모하여 중국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5g을 은닉한 운동화를 우편물 상자에 집어넣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장○○ 사건 (2007. 6. 청주지검)
 

2007. 6. 8.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박사장’ 으로부터 필로폰 201.6g을 교부받아 이를 100g씩 나누어 피의자 양쪽 다리에 찬 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신○○ 사건 (2007. 6. 수원지검)
 

2007. 6. 중국에 거주하는 민○○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0g을 밀반입
- 강○○ 사건 (2007. 6. 안산지청)
 

2007. 6. 15.경 필로폰 1회 투약하고, 이○○와 공모하여 같은 달 18.경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약 1kg을 밀반입
- 한·중·일 연계 필로폰 밀수 사건 (2007. 10. 서울중앙지검)
 

국내 최고의 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김○○와 판매사범인 윤○○ 등 13명이 공모하여 2007. 6. 18. 중국 대련항에서 필로폰 2,240.8g를 약 90g씩 소량 분산하여 비닐로 포장하고 ‘오투기 햇반’ 45개 중 23개의 햇반의 밥 밑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하는 등 2007. 2. 2.~6. 19.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10kg을 밀수입하여 이중 대부분을 일본 야쿠자에게 밀수출하고 일부를 국내에 밀매
- 정○○ 사건 (2007. 8. 서울중앙지검)
 

2007. 2. 1.경 윤○○ 등과 공모하여 중국 위해에서 필로폰 500g을 비디오카메라 가방에 은닉하여 위해항과 인천항을 운항하는 페리편으로 밀수입하고, 같은 달 16.경 중국 대련에서 필로폰 900g을 철재바이스에 분해하여 그 속에 은닉하여 대련항과 인천항을 운항하는 페리편으로 밀수입
- 윤○○ 사건 (2007. 7. 서울남부지검)
 

2007. 7. 6. 중국 북경에서 동방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38.1g을 비닐로 밀봉한 후 삼각 팬티 속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김○○ 사건 (2007. 7. 서울중앙지검)
 

2007. 7. 13. 중국 연길시에서 필로폰 약 100g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이○○ 사건 (2007. 7. 속초지청)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2007. 7. 18. 중국 훈춘시에서 필로폰 약 416.53g을 건축자재인 실리콘 통 속의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은닉하여 속초항으로 밀반입.

- 벼○○ 마○○○ 알○○○○○ 사건 (2007. 8. 서울중앙지검)

2007. 7.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각 50만 원씩을 건어 필리핀 공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같은 달 30. 필리핀 이사벨라시에서 봉지 커피 속에 필로폰 24.8g을 은닉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최○○ 사건 (2007. 9. 대구지검)

2007. 8. 중순경 중국에 있는 성○○에게 금 1,0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0. 필로폰 약 103.85g을 여행객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안○○ 사건 (2007. 9. 서울중앙지검)

2007. 9. 1. 김○○ 등 조선족 및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중국 북경에서 필로폰 182.4g을 알약 캡슐 526정 속에 넣고 비닐포장을 한 후 의약품으로 위장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밀반입

- 박○○ 사건 (2007. 3. 인천지검)

2007. 3. 12.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 185.8g을 전압측정기 4개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황○○ 사건 (2007. 10. 인천지검)

2007. 3. 8.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한 수하물 속에 필로폰 340g을 도자기세트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실○ 사건 (2007. 9. 인천지검)

2007. 9. 19. 브라질 국적인 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엑스터시 약 14,564정을 여행용 가방의 밑바닥을 개조하여 은닉한 후 국제여객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이○○ 사건 (2007. 10. 인천지검)

2007. 4. 17.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한 전기밥솥에 필로폰 1,238g을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박○○ 사건 (2007. 10. 대구서부지청)
 

2007. 10. 24.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약 203g을 보이차 상자 바닥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밀반입
- 김○○ 사건 (2007. 11. 서울북부지검)
 

2007. 11. 2.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112g을 비닐에 넣은 후 팬티 속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홍콩·한국·일본 연계 필로폰 밀수조직 사건 (2007. 11. 부산지검)
 

일본 최대 폭력조직 '야마구치구미'의 중간 보스인 이○ 노○○ 등 피의자들은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여, 2007. 9. 28.경 홍콩발 김해공항행 항공기 편으로 필로폰 약 931g을 소지한 채 국내로 들어와 이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11. 10.경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침
- 김○○ 사건 (2007. 11. 부산지검)
 

2007. 11. 5.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약 200g을 DVD 플레이어 안에 은닉하여 복합운송업체 화물 편으로 밀반입
- 김○○ 사건 (2007. 12. 서울중앙지검)
 

2007. 11. 중순 중국 영구시에서 필로폰 188.8g을 40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9. 필로폰을 허리춤에 테이프로 은닉하고 영구항에서 페리 편으로 인천항으로 밀반입
- 2008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밀수 사건 (2008. 1. 수원지검)
 

2008. 1. 중국 복건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이 혼합된 감기약 약 2.2kg을 차봉지에 넣어 밀폐하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권○○ 사건 (2008. 1. 수원지검 성남지청)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2008. 1.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90g을 꽃감 상자 안에 은닉하여 배편으로 인천항으로 밀반입
- 김○○ 밀수 사건 (2008. 1. 수원지검)
 

2007. 11.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엑스터시 약 8g을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은닉한 채 김포 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원○○ 등 밀수 사건 (2008. 2. 대전지검)
 

2008. 1.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0g을 국제특급 우편으로 밀반입
  - 박○○ 밀수 사건 (2008. 4. 청주지검)
 

2008. 4. 중국 북경공항에서 필로폰 약 50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향문 속에 감추어 김해 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남북정기운항선을 이용한 밀수 사건 (2008. 5. 수원지검)
 

피의자 임○○은 2008. 4. 중국에서 피의자 쯔○○(중국 국적의 조선족)의 알선으로 필로폰 약 200g을 매수하여 인천쪽 컨테이너에 은닉한 후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세관을 통과하고, 북한 나진항에서 남북정기운항선인 추싱호에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밀반입
  - 권○○ 밀수 사건 (2008. 5. 부산지검)
 

2008. 5. 김○○(중국 거주, 미체포)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1,063g을 국제특송 우편으로 수취하여 밀반입
  - 엑스터시 밀수 사건 (2008. 5. 수원지검)
 

피의자 루○○○○은 2008. 4. 미국에 거주하는 애○○로 하여금 MDMA(일명 엑스터시) 10.1g을 지퍼형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페덱스 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밀반입
  - 염○○ 밀수 사건 (2008. 5. 인천지검)
 

2008. 4.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김○○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360g을 보푸라기 제거용 롤러 등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송부하여 밀반입
  - 박○○ 등 밀수 사건 (2008. 7. 대구지검 포항지청)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하는 일명 ‘보따리상’인 피의자가 2008. 7.경 중국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50g을 각 4개의 비닐 팩에 담아 생활용품인 먼지제거용 롤러 2개에 각 2개씩 넣고, 다른 생활용품들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강○○ 밀수 사건 (2008. 7. 수원지검 성남지청)

2008. 7. 14. 중국에서 소포의 밑바닥에 필로폰 약 98.5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밀반입

- 김○○ 등 밀수 사건 (2008. 8. 대구지검 포항지청)

2008. 8. 14. 피의자가 중국에서 필로폰 320g을 팬티 속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남○○○ 밀수 사건 (2008. 9. 서울중앙지검)

2008. 8. 29.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304.45g을 팬티 아래 부분에 부착하여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마약류원료물질 슈도에페드린 밀수 사건 (2008. 9. 인천지검)

피의자 남○○○는 조선족 중국인으로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피의자 왕○○로부터 중국 복건성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슈도에페드린<sup>13)</sup>을 국내로 발송하면 이를 수령하여 뉴질랜드로 다시 발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슈도에페드린 합계 6,886g을 중국 복건성에서 국내로 밀수입

- 김○○ 밀수 사건 (2008. 9. 서울서부지검)

2008. 9. 8. 필로폰 약 220g을 비닐로 싼 다음 사타구니 속에 감춘 채 중국 심양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13) 감기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약물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유○○ 밀수 사건 (2008. 9. 부산지검)  
2008. 2. 16. 필로폰 약 216.97g을 반으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담고 바지 호주머니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 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장○○ 등 밀수 사건 (2008. 10. 수원지검)  
피의자들은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박○○에게 필로폰 약 1kg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박○○은 2008. 10. 13.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니○○ 히○○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0. 인천지검)  
일본 국적의 피의자들은 일본의 마약밀수조직으로부터 30만 엔씩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을 경유 다시 일본으로 밀수입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 말레이시아로 출발한 후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kg씩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필로폰 던지기<sup>14)</sup>사범 밀수 사건 (2008. 10. 수원지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신○○, 박○○은 필로폰 매매로 재판중인 최○○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속칭 '던지기'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의자 민○○는 2008. 10. 13.경 중국 연길시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1kg을 작업 대상자인 장○○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남아프리카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알○○ ○○○○ ○○는 2008. 12. 3. 여행용 가방 안 양쪽 측면에 필로폰 약 3kg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카타르 도하 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오사카 공항에서 환승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이○○○ 아○○○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14) 마약류 사범이 형사처벌상의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그 마약류 사범의 동료나 조직원이 그 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마약을 수수·매수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수수·매수한 것처럼 조작한 후,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하여 상대방이 검거되도록 하고 선처나 감형을 받게 하는 불법적인 수법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일본 국적의 피의자들은 필로폰을 터키에서 한국을 경유 다시 일본으로 밀수입할 목적으로, 피의자 이○○는 2008. 12. 19.경 터키 이스탄불에서 필로폰 약 856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 1개를 소지하고 터키항공에 탑승, 2008. 12.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피의자 나○○는 서울역에서 위 가방을 인수하여 밀반입

- 카○ 켄○○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일본 국적의 피의자들은 필로폰을 터키서 한국을 경유 다시 일본으로 밀수입할 목적으로 피의자들은 터키에서 여행용 가방 2개에 필로폰 1kg과 1.7kg을 각 나누어 은닉한 뒤 위 여행용 가방을 각자 소지하고 터키항공에 탑승, 2008. 12. 22.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2009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린○○ 등 대만인 밀수 사건 (2009. 1. 인천지검)

대만인 린○○은 중국인 일명 ‘안○’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사례금 8천 인민폐(한화 160만원 상당)를 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1,181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중국 푸둥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하고, 피의자 채○○ 등은 중국내 국제밀수조직 총책인 사○○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사례금으로 10만엔(한화 140만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린○○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김○○ 밀수 사건 (2009. 1. 창원지검 진주지청)

2009. 1. 13. 중국 연길시에 있는 동북아세아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71.15g을 매수하고, 2009. 1. 15. 중국 연길시에서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약 59.65g을 밀수입

- 이○○ 밀수 사건 (2009. 2. 서울북부지검)

중국 국적 조선족인 피의자는 2009. 2. 7. 필로폰 약 99.6g을 자신의 팬티 속에 소지한 채 중국 청도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일본인 여성 밀수 사건 (2009. 2. 인천지검)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피의자 토○○○○는 2009. 2. 2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031.3g을 액자 2개에 나누어 은닉하여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카타르 항공편에 탑승한 후 카타르에서 환승하여 일본 오사카를 경유, 2009. 2. 21.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 남아프리카인 밀수 사건 (2009. 3. 인천지검)

판○○○ ○○○○ ○○○○는 2009. 3. 12.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070g을 서류가방에 넣고, 이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요하네스버그 공항을 출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 김○○ 밀수 사건 (2009. 3. 서울중앙지검)

2009. 3. 18. 중국으로부터 녹차 상자에 은닉된 필로폰 235.5g을 인천항으로 밀수입

## - 황○○ 밀수 사건 (2009. 3. 춘천지검 속초지청)

피의자는 2008. 여름경 김○○(제보자)에게 접근하여 필로폰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김○○이 이를 승낙한 후 2009. 3. 23. 중국에서 김○○이 피의자로부터 필로폰 327.92g을 건네받고, 2009. 3. 26. 속초국제여객터미널로 밀수입

## - 일본 야쿠자와 연계된 필로폰 국제밀매조직 사건 (2009. 3. 부산지검)

일본 야쿠자 조직 '아마구치구미' 출신인 이○○○ ○○○ 등 피의자들은 일본에 있는 모○○○(일본인, 야쿠자 간부)의 지시를 받고 미리 밀반입하여 국내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09. 3. 20. 필로폰 약 1,021.33g을 와이셔츠 포장 박스 4개에 250g씩 분산하여 숨긴 채 판매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 엑스터시 등 밀수 사건 (2009. 4. 수원지검 안산지청)

피의자 박○○(조선족 여성)은 2009. 4. 9.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엑스터시 298정, 케타민 82g을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여 밀수입

## - 박○○ 밀수 사건 (2009. 4. 인천지검)

피의자 2009. 4. 23. 필로폰 195.24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 연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원 밀수 사건 (2009. 5. 인천지검)

피의자 조○○○○(남아프리카 국적 백인)는 남아프리카에서 운동화 두 켤레 밑창에 필로폰 1,017g을 나누어 은닉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밀수하고, 서울 중구 소재 뉴서울호텔 1014호에서 피의자 코○○○(일본 국적 여성)와 타○○○(일본 국적 여성)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의자 코○○○와 타○○○는 위 호텔 1111호에서 피의자 아○○○○○(나이지리아 출신 일본 귀화 흑인)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

## - 다국적 마약 밀수 사건 (2009. 6. 인천지검)

피의자 벤○○○○○○(남아프리카 국적 백인)는 필로폰 1,041g을 가방에 은닉한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출발 싱가포르에서 환승하고 2009. 6. 2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피의자 나이지리아 국적 흑인 우○○○○○과 일본 국적 여성인 코○○○는 국내에서 위 가방을 건네받아 일본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

## - 김○○ 밀수 사건 (2009. 7. 부산지검)

2009. 7. 26. 필로폰 95.62g을 화장품용기 2개 안에 은닉한 채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 이○○ 밀수 사건 (2009. 7. 인천지검)

2009. 6. 26. 필로폰 205g을 자전거 타이어 안에 은닉한 채 중국 단둥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 - 장○○ 밀수 사건 (2009. 8. 부산지검)

2009. 8. 20. 필로폰 40g을 콘돔에 넣어 자신의 질 속에 넣고, 필로폰 201g을 보이차 포장 박스 2개에 은닉하여 중국 위해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 이○○ 등 밀수 사건 (2009. 9. 인천지검)

피의자 이○○는 공범 윤○○의 부탁을 받고 2009. 9. 11. 필로폰 137.94g을 담뱃갑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부산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로 송부하여 밀수입

## - 장○ 등 밀수 사건 (2009. 10. 인천지검)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피의자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윤○○과 공모하여 필로폰 400g을 플라스틱 파이프 36개 속에 나눠 넣고 스티로폼 박스로 은닉한 뒤 2009. 9. 28.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밀수입

- 태국인 야바 밀수 사건 (2009. 10. 전주지검 군산지청)

피의자 프○○○ ○○는 태국에 거주하는 와○가 야바 160정을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2009. 10. 17.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여 밀수입

- 서○○ 밀수 사건 (2009. 12. 청주지검)

2009. 11. 28. 중국에서 필로폰 295.6g을 여성용 거들로 사타구니에 은닉한 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밀수입

- 장애인 이용 밀수 사건 (2009. 12. 대구지검)

피의자 정○○는 남편 김○○가 필로폰 수수 등으로 구속되자 김○○의 선처를 위하여 피의자 공○○ 등과 공적작업<sup>15)</sup>을 하기로 공모하고, 정신지체 1급 장애인 피의자 김○○을 포섭, 김○○이 태국으로 출국하여 공○○로부터 필로폰 41.05g을 건네받아 팬티에 은닉한 상태로 2009. 5. 11.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2010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ㄱ○○ 밀수 사건 (2010. 1. 서울중앙지검)

2009. 12. 경 필로폰 약 104.g을 팬티 속에 은닉하여 중국남방항공기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국내 조직포력배와 연계된 국제 마약 밀수 사건 (2010. 1. 서울중앙지검)

피의자들은 2010. 1. 6.경 멕시코 자포판시에서 필로폰 약 48.2g을 앨범 속에 넣고 박스로 포장한 다음 국제특송 화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15) 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운 공적사항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상대로 마약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여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 ㄹㅇㅇ 밀수 사건 (2010. 3. 인천지검)

2010. 3.경 피의자들은 중국에서 두꺼운 사전 안에 필로폰 약 987.9g을 은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중국 대련에서 화객선을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하게 하여 밀수입

## - 중국인 ㄱㅇㅇ 밀수 사건 (2010. 5. 인천지검)

2010. 5.경 피의자 ㄱㅇㅇ은 중국 위해에서 중국거주 ㄴㅇㅇ으로부터 필로폰 약 703.3g이 은닉된 오디오 스피커를 건네받아 인천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1. 필로폰 1,978g 밀수사범 검거 및 필로폰 압수(인천지검)

## - 루마니아인 ㄱㅇㅇ ㄴㅇㅇ ㅇㅇㅇㅇ 밀수 사건 (2010. 8. 인천지검)

2010. 8.경 필로폰 984.8g과 993.6g 도합 1,978.4g을 불투명 테이프로 각각 나누어 포장하여 쿠킹호일로 감싼 후 여행용 가방 옆면에 은닉하고 가나를 출발하여 두바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밀수입

## - ㄴㅇㅇ 밀수 사건 (2010. 9. 인천지검)

2010. 8.경 피의자는 중국에 있는 ㄴㅇㅇ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80.16g을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에 은닉하여 보따리상을 통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 - ㅇㅇㅇ 밀수 사건 (2010. 9. 인천지검)

2010. 9.경 피의자는 중국에 있는 ㅎㅇㅇ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37.79g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고 그 중 1개는 소형 액자 내부에, 2개는 중형액자 내부에 각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 ㅎㅇㅇ 밀수 사건 (2010. 9. 수원지검 성남지청)

2010. 9.경 피의자는 중국 거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0g을 자동차 HID램프 안정기 15개에 은닉하여 자동차부품 화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 ㅎㅇㅇ 밀수 사건 (2010. 10. 서울남부지검)

2010. 3.경 피의자는 중국 마카오에 있는 ㄱㅇㅇ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5g을 컴퓨터용 가방 밑면과 측면에 비닐봉지 15개로 나누어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엑스터시 밀수 사건 (2010. 10.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0. 10.경 피의자 ㅂㅇㅇ이 엑스터시 400정을 생리대 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 ㅂㅇㅇ 등 밀수 사건 (2010. 10.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ㄴㅇㅇ 등과 공모하여 2010. 10.경 보따리상을 통하여 필로폰 410.8g을 옷상자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 싱가포르인 밀수 사건 (2010. 11. 인천지검)
 

2010. 11.경 피의자들은 동남아시아 마약밀수 조직원들로부터 필로폰 대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거쳐 말레이시아로 밀반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영양갱과 비누로 위장한 필로폰 약 1kg을 국내로 밀수입한 후 다시 말레이시아로 밀반입하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적발
- 2011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ㄱㅇㅇ 밀수 사건(2011. 1. 춘천지검)
 

피의자는 2011. 1.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45g을 여행 가방에 은닉한 채 배를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 ㅂㅇㅇ 등 밀수 사건(2011. 2. 부산지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2.경 중국 심양에서 여행 가방에 필로폰 약 2kg을 은닉한 채 중국남방항공기를 이용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2개국에 걸친 밀수 사건(2011. 2. 제주지검)
 

피의자들은 2010. 10.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필로폰 약 11g을 화장품에 은닉한 채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해 12.경 마카오에서 필로폰 약 13g을 몸에 은닉하고, 2011. 1.경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 30g을 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각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루마니아인 밀수 사건(2011. 3. 인천지검)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피의자(나이지리아 마약밀수조직에 포섭된 운반책)는 2011. 3.경 여행 가방에 필로폰 약 1,079g을 은닉한 채 아프리카 말리를 출발, 모로코,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중국인(조선족) 밀수 사건(2011. 3. 인천지검)

피의자는 2011. 3.경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64.5g을 치약튜브 안에 은닉한 채 중국항 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탈북자 가족 밀수 사건(2011. 4.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의자들은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5회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 약 200g을 몸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캐나다 교포 및 유학생 밀수 사건(2011. 4. 서울지방경찰청)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3.경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1.2kg을 국제특송 화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나이지리아인 주도 밀수 사건(2011. 4.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4.경 운반책인 한국여성을 이용하여 여행 가방에 필로폰 약 3,159g을 은닉한 채 아프리카 말리를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口OO 밀수 사건(2011. 5. 서울남부지검)

피의자는 2011. 4.경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62g을 가방에 은닉한 채 화물로 위장, 중국항 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나이지리아 마약조직 밀수 사건(2011. 6.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11. 6.경 운반책인 미국 여성을 이용하여 가방에 필로폰 약 2,603g을 은닉한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 홍콩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보따리상 이용 밀수 사건(2011. 6. 인천지검)

피의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6.경 중국 청도항에서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50g이 은닉된 장난감을 소지하고 승선하게 한 다음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

##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조직폭력배(청주지역 폭력조직 '신석만이파' 부두목) 연루 밀수 사건(2011. 7. 청주지검)  
피의자들은 2010. 3.경부터 2011. 6.경까지 3회에 걸쳐 태국에서 필로폰 약37.7g을 국제 우편물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중국마약조직 개입 밀수 사건(2011. 9. 인천지검)  
피의자(국내 여행사 직원)는 2011. 9.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의 중국마약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2,017g이 든 수화물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휴대하고 중국 동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지게꾼에 의한 밀수 사건(2011. 10. 서울중앙지검)  
피의자(마약운반책으로 속칭 지게꾼)는 밀수책(별건 수배로 중국 도피 중)과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 약 220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
- 국제특송 화물이용 밀수 사건(2011. 11.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피의자(모두 수회 마약전과)들은 공모하여 2011.경 중국 광저우에서 조립식 자전거 부품속에 필로폰 약 97.81g을 은닉한 후 국제특송 화물을 이용, 국내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
- 제3국 밀수출 기도 사건(2011. 12.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괌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여 2011. 11.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2kg이 은닉된 여행 가방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제4절 대마

### 1. 세계 개요

- 2009년 현재 대마류(Cannabis)의 전 세계 남용인구(15~64세)는 약 2.8~4.5%인 1억2천5백만~2억3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대마초(Cannabis herb)는 최대 남용, 생산, 압수되는 마약임
- 2009년 서유럽 및 대양주 지역의 소비량은 안정적 또는 감소세였으나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지역에서는 소폭 증가세로 보고되었음
-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마(류)의 장기간 또는 대량 남용의 경우는 정신질환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THC성분 함량도 10~15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
- 대마초의 경작은 국내 또는 지역적 소비로 인해 분산적이며, 대마수지의 경우는 대마초에 비해 더욱 국지적이고 장거리 밀매가 이루어지며 주요 소비국으로는 모로코, 아프카니스탄, 레바논, 네팔, 인도 등임
- 2009년 대마초 압수량은 2006~2007년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여 6,000톤 규모로, 압수량이 증가한 미국과 멕시코에서 대량 압수되었고 대마수지의 경우는 2008년에 대비하여 감소함과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한 서유럽 및 중부 유럽지역에서 최근 증가추세인 북아프리카지역으로 이동 추세임

## 2. 소비(남용) 동향

- UNODC의 2009년 세계 대마 남용률은 15~64세 인구대비 2.8~4.5% 수준(2008년 2.9~4.3%)으로 약 1억2천5백만~2억3백만 명 수준으로 추정함
- 북미지역 대마 남용은 미국은 증가추세, 캐나다는 감소추세로 각각 나타나고, 북미지역 15~64세 인구의 약 10.7%가 남용인구로서 미국의 2010년 남용률 9.9%보다 높은 수준이고, 미국의 대마 남용추세는 2002~2007년 감소세를 나타낸 후 증가하여 2009년에는 2002년의 남용률 수준을 회복하였음



[그림 2-12] 미국 12세 이상 인구의 대마 남용 추이

※ 출처 :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1

- 캐나다는 2004년 이후 대마 남용률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연도별 남용률 추세는 2004년 14.1%, 2008년 13.6%, 2009년 12.6%로 각각 나타나고, 15~24세 인구 중 남용률은 2004년 37%에서 2009년 26.3%로 감소추세이고 멕시코의 대마 남용현황은 성인인구의 1%수준으로 미국,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됨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2009년 중남미지역의 대마 남용추세는 지역 내 국가의 1/3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남용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아르헨티나, 벨리즈, 볼리비아, 칠레, 과테말라로 과테말라를 제외(15~64세 인구의 남용률이 4.8%인 반면, 12~19세 이상 청소년의 남용률은 1%)한 대부분의 국가는 전체 인구대비 남용률보다 청소년의 남용률이 높았는데,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15~64세 인구의 남용률은 7.2%, 13~17세 인구의 남용률은 7.6%임
- 2009년 유럽은 체코,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등 동유럽 국가들의 대마 남용률만 증가추세이고, 나머지 지역은 안정 또는 감소추세이며, 유럽지역의 15~64세 인구의 대마 남용률 평균은 5.2~5.3% 수준으로 동(남)유럽지역이 2.6%, 서부유럽 및 중부유럽은 7.1%임
- 아프리카의 경우는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로 추정되고, 특히 2009년 15~64세 인구의 남용률은 3.8~10.4% 수준으로 약 2,160만~5,910만 명이 대마 남용인구 추정치이며 서부 및 중부아프리카가 주요 남용지역임
- 케냐는 2009년 해안지역(coastal provinces) 4,500가구 대상 설문결과, 전체 연령의 10.6%가 대마 남용인구였고, 남용률은 교외지역(4%)보다 도시지역(11%)이 높았음
- 2009년 아시아의 대마 남용은 최근 증가세로 추정되며 15~64세 인구 중 남용률은 1.2~2.5%로 약 3,100만~6,800만 명 가량이 전년도 최소 1회 이상 대마를 남용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대양주의 대마 남용은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호주, 뉴질랜드는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바, 호주의 15~64세 인구의 남용률은 9.3~14.8%로 이는 2004~2007년 약 20%이상 감소하여 2007년에는 10% 수준과 비교되며 뉴질랜드의 2008년 16~64세 인구의 대마 남용률은 13.4~15.7% 수준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21%, 여성이 13.9%이며 연령별로는 남성은 18~24세 사이에서, 여성은 16~17세 및 18~24세의 연령대에서 남용률이 가장 높았음<sup>16)</sup>

16) Drug use in New Zealand, Key Results 2007/08 New Zealand Alcohol and Drug Use Survey, Ministry of Health 2010 참고

### 3. 생산 동향

- 대마류 마약은 실제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남용되는 가장 일반적 불법마약으로 특히 대마초는 원거리 밀거래되는 대마수지와는 달리 대부분 지역 내에서 생산되어 밀매되고 있고, 주요 대마수지 생산지로는 아프카니스탄, 모로코, 레바논, 네팔 및 인도이며 2009년 세계 생산량 추정치는 대마초가 13,300~66,100톤이며 대마수지가 2,200~9,900톤 가량이고 경작면적은 200,000~641,800ha임
- 2010년 아프카니스탄 정부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대마수지 주요 생산지인 아프카니스탄은 최근 재배농가가 대마수지의 수익성으로 인해 대마 재배를 선호하고 있고, 대마수지 재배면적은 2009년 10,000~24,000ha, 2010년 9,000~29,000ha이었고, 생산량은 2009년 1,500~3,500톤, 2010년 1,200~3,700톤으로 추정하였음
- 레바논, 스페인은 모로코산(産) 대마의 경유지로, 터키와 인도는 생산지로 보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4,265ha에 달하는 대마 경작지를 단속하기도 했고, 멕시코 대마 경작지는 2005년 5,600ha에서 2009년 17,500ha로 증가하였음
- 유럽의 대마 생산 증가추세는 주로 소규모 실내 경작(indoor settings) 또는 전문 밀매조직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대마초는 2008년 유럽 29개국에서 생산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음<sup>17)</sup>
- 최근 들어 미국, 네덜란드, 독일은 대마초('Sinsemilla')의 THC성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농도 변화를 관찰보고 하였는데, 미국은 46,211개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1990년 초반~1990년 후반 사이에 THC농도가 6%에서 13%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이후 최근 10년은 거의 1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약 50개소의 '커피숍(Coffee Shop)'에서 수거한 샘플을 조사한 결과, 2000년 이후 THC농도는 9%에서 19%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4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다 2009년에는 15% 수준으로 보고된 반면, 독일은 1997년 5%에서 2004년 10%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8%로 다시 소폭 감소하였음

17)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Annual Report 2010 참고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4. 밀매 동향

- 주로 지역 내에서 밀매되는 대마초와는 달리 대마수지는 지역 간 밀매가 빈번한 상황이며, 2008년 세계 압수량이 8% 가량으로 감소하기도 했으나 2009년에는 6,022톤으로 다시 2006년과 2007년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지역별 압수량은 북미지역이 70%, 아프리카 11%, 남미 10%, 아시아 6%, 유럽 3% 순이었음
- 토고, 인도, 과테말라, 탄자니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이 낮은 밀매가격을 형성하고, 가장 높은 밀매가격은 일본인데, 이는 일본 남용자의 소득수준이 높고, 다른 대다수 지역과는 달리 일본에서 밀매되는 대마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됨
- 북미지역 대마초 압수량은 2008년 3,205톤에서 2009년 4,189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 멕시코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주로 멕시코에서 생산된 대마초가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의 경우 대마초 압수량은 2009년 2,049톤이고 멕시코도 2008년 1,658톤에서 2009년 2,105톤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멕시코의 주요 대마초 압수지역(전체 압수량의 75% 차지)은 Sinaloa, Durango, Chihuahua, Sonora 지역이고, 경작지 단속(전체 경작지 단속의 76%)은 주로 Sinaloa, Chihuahua, Durango 지역이었음
- 남미지역 대마 압수량은 2007년 946톤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09년 598톤으로, 특히 콜롬비아는 2008년 255톤에서 2009년 209톤으로 감소하였고, 브라질도 2008년 187톤에서 2009년 131톤으로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였으나 2009년 볼리비아는 1990년 이후 최대 압수량인 33톤으로 보고되었고, 1998~2009년 기간 동안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줄기, 대마종자를 포함하는 대마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대마줄기의 경우 1998년 320kg였던 압수량이 2004년 18톤, 2009년 1,937톤으로 급증 추세였음

## 제4절 대 마

- 아프리카 대마초 압수량은 2004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그 변동률이 상당히 심한 편으로 2008년 936톤에서 2009년 640톤으로 급감하였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00~2009년 기간 동안 압수량의 94%와 압수 보고의 90% 이상은 이집트, 케냐,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공, 탄자니아 등 7개국이라고 보고된 바 있는데, 특히 나이지리아는 2007년과 2008년 아프리카 최대의 압수량을 보고하였고, 2009년의 경우 나이지리아산(産) 대마초의 최종 목적지는 네덜란드(50%), 일본(30%), 이탈리아(20%)로 분석되었음
- 아시아지역 대마초 압수량은 세계 압수량 대비 5.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최근 증가추세이며 2009년 333톤이었는데 주로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다량이 압수되었고, 인도네시아 압수량은 2008년 141톤, 2009년 111톤으로 2003~2007년 평균 20톤에 비해 기록적인 압수량을 나타내었고, 99%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되었음
- 인도의 대마초 압수량도 2008년 103톤, 2009년 171톤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1994년 이후 최대치로 압수 대마초의 81%가 국내산이고, 나머지는 네팔산이라 분석되었으며, 태국의 대마초 압수량<sup>18)</sup>은 2008년 19톤에서 2009년 18톤으로 주로 1) 라오스에서 태국 국내로 유입되거나 2)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밀수출된다고 파악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대마초 압수량은 2007년 504kg에서 2009년 207kg로 감소하였고 대부분 보츠나와, 프랑스, 남아공, 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였음

18) 제15차 아태지역약물단속회의(ADEC, 2010, 일본 동경) 및 제20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2010, 한국 서울)에서 발표된 태국 마약위원회(ONCB)발표자료 참고



## 5. 국내 대마사범 추이

[표 2-11] 연도별 대마사범 및 대마초 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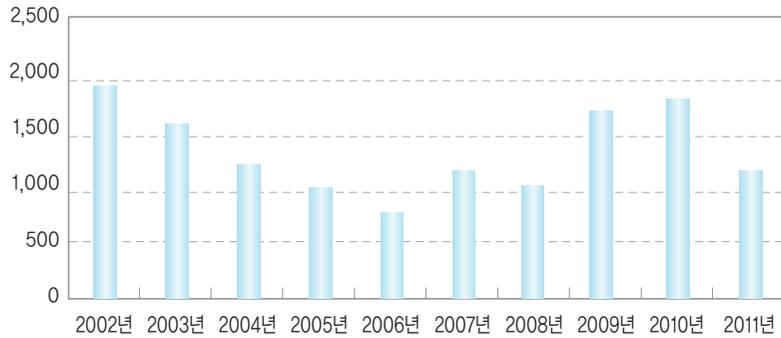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속인원	1,965	1,608	1,231	1,032	835	1,170	1,045	1,712	1,837	1,189
압수량(kg)	195	37	36	18	21	22	93	213	44	84

※ 압수량은 소수점 이하 자리를 반올림 처리

- 대마사범은 그 동안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하다가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가 2007년도부터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바, 이는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 및 외국 조기유학 내국인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대마초 밀반입 추이
  - 1995년도 이전의 대마초 밀반입은 대부분의 밀수입자 자신들이 흡연할 목적으로 10~20g 단위의 소량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주종을 이룸
  - 그러나 1996년도부터 밀반입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면서 영리목적 매매로 뚜렷한 전환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주요 사례로는 2003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대마초 7kg 밀반입, 역시 나이지리아인의 아이스박스를 이용한 대마 8kg 밀반입, 2004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대마 3.5kg 밀반입, 2006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5kg 밀반입, 2009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백인 여성을 이용한 대마 4.3kg 밀수입,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여성의 대마 6kg 밀수입한 사례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2002년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 등이 6회에 걸쳐 아프리카산 대마초 137kg을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가 잇달아 적발됨
  - 2009년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종전의 백인 남성이 아닌 백인 및 흑인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대규모 밀수사범이 적발된 적은 있으나 2005년도 이후에는 위와 같은 대규모 밀거래 현상보다는 대체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소규모 소비목적의 대마 밀수사범이 적발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의해 밀수 및 흡연이 폭넓게 퍼져가고 있는 실정임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그림 2-14] 대마사범 추세

## ● 2007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 키○○○○○ 사건(2007. 4. 대전지검)

2007. 4. 16. 대마 2.9g을 호주발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하고, 같은 날 피의자의 집에서 흡연기구인 속칭 '워터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대마 중 0.04g을 흡연

## - 우○○ 사건(2007. 4. 의정부지검)

2007. 4.경 미국 시민권자인 친구 사건의 장○○가 대마 약 11.2g을 랩으로 포장한 후 청바지에 은닉한 채 국제우편물로 송부하여 밀반입하고 흡연

## - 설○○ 사건(2007. 5. 포항지청)

2007. 2. 5.경 박○○ 등과 공모하여 태국 방콕에서 대마초 200g을 800달러에 구입한 후 비닐랩에 넣고 압축하여 각자 팬티 속에 은닉한 채 같은 달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여 판매, 흡연

## - 알○ 미○○ 사건(2007. 5. 대전지검)

2007. 5.경 캐나다에서 발송한 대마 약 1.65g(대마담배 5개비)을 은닉한 국제우편물로 전달받아 밀반입

## 제4절 대마

- 와○○○○○○○○○○○○○○ 사건(2007. 6. 안산지청)  
2007. 6.경 스리랑카에서 발송된 우편물 속에 대마수지 8.1g을 은닉하여 밀반입
- 한국형 대마 강정 사건(2007. 7. 의정부지검)  
2007. 6. 초순 피의자 던○○○○은 주거지에서 드래곤맘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마 광고를 보고, 그 무렵 대마자금 60만원을 위 드래곤맘 웹사이트 관리자가 지정하여 준 캐나다 밴쿠버시 이하 불상지로 송금하고, 위 드래곤맘 관리자는 대마강정 약 784g, 대마강정 892.4g 합계 1,676.4g 및 신종 대마 엑기스(일명 버더<sup>19)</sup>) 약 5g을 국제우편물로 송부하여 밀반입
- 임○○ 사건(2007. 7. 홍성지청)  
2007. 6. 27. 이○○과 공모하여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는 랜○에게 부탁하여 사진액자 속에 대마 27g을 은닉한 후 항공우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 콜○○○○○○ 사건(2007. 7. 대전지검)  
2007. 6.경 미국에서 발송한 대마 약 2.4g(대마담배 4개비)을 은닉한 우편물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밀반입
- 니○○ 사건(2007. 9. 청주지검)  
2007. 9. 3. 스리랑카로부터 대마 약 6.9g을 국제소포로 밀반입
- 니○○○○ 사건(2007. 9. 광주지검)  
2007. 8.경 미국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비닐에 싸여있는 해쉬쉬 20.65g을 땅콩버터가 든 유리병 속에 넣은 다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여 밀반입
- 스○○○○ 사건(2007. 9. 울산지검)  
2007. 8. 23.경 해쉬쉬 1.2g을 주머니에 은닉하여 프랑스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하고, 같은 해 9. 7.경 프랑스 친구에게 부탁하여 해쉬쉬 10.4g을 국제우편으로 프랑스에

19) Budder는 해쉬쉬보다 수십 배 효력이 강력한 대마 엑기스 추출액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서 한국으로 밀반입

- 전○○ 사건(2007. 9. 서울중앙지검)

2007. 10.경 공모자인 인도 마나리시의 성명불상자가 해쉬쉬 약 222g을 인도유물 사진첩의 겉표지 안쪽에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여 밀반입

- 프○○○ ○○ 사건(2007. 10. 수원지검)

2007. 10. 1.경 슬로베니아에서 대마 3.2g을 국제소포로 밀반입

- 2008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루○○ ○○○ ○○ 사건(2008. 1. 수원지검 평택지청)

2007. 12. 29. 미국 조지아 주에서 프○○○ ○○이 마약류인 대마 약 4.6g을 헤어그리스 안에 숨긴 후, 머리빗, 의류와 함께 소포로 포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여 밀반입

- 시○○○ ○○○ 사건(2008. 1. 인천지검)

2008. 1. 17. 태국 방콕에서 대마 농축액인 해쉬쉬<sup>20)</sup>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신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라○○ ○○○ ○○○ 사건(2008. 3. 부산지검)

2008. 3. 8. 중국 광주에서 해쉬쉬 약 18g을 사탕봉지 안에 은닉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레○ ○○ 사건(2008. 3. 춘천지검 속초지청)

2008. 3. 8. 러시아에 있는 자루비노항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쉬쉬오일<sup>21)</sup>) 약 86.65g 상당

20) 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8~10배 강함

21) Hashish Oil은 해쉬쉬를 반복 증류하여 추출되는 것으로 그 효능이 해쉬쉬 보다 2~3배 정도 강함

## 제4절 대 마

- 이 비닐로 싸여 은닉되어 있던 질레트 면도 크림통 1개를 소지한 채 위 자루비노항과 속초항을 왕래하는 동춘호에 탑승하여 속초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입국하여 밀반입
- 에○○○ ○○○○ 사건(2008. 5. 춘천지검 속초지청)
 

2008. 4. 30. 캐나다 거주 형에게 대마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팬케이크 상자 안에 대마 약 27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같은 해 5. 7. 수령하여 밀반입
  - 드○○○ ○○○○ 사건(2008. 5. 부산지검)
 

2008. 4. 24. 미국 거주 친구에게 대마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땅콩 버터 병 속에 대마 약 24.5g,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4정을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같은 해 5. 21. 수령하여 밀반입
  - 리○○ ○○ ○○○ 등 사건(2008. 5. 인천지검)
 

피의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인 앤○와 공모, 리○○ ○○ ○○○가 대마 14kg을 가방에 넣은 채 2008. 5. 26.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여 밀반입
  - 제○○ ○○ ○○○ 사건(2008. 6. 의정부지검)
 

피의자는 주한미군 병사로 미국 거주 민간인 테○○ ○○○로부터 2007. 12. 20. 크리스마스카드 속에 대마 4.6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데○○○ ○○○○ 사건(2008. 7. 의정부지검)
 

피의자는 주한미군 초청 계약근무자로 미국 거주 제○○○로부터 2008. 4. 28. 땅콩버터 병 속에 대마 19.8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보○○ ○○ ○○○ 사건(2008. 7. 제주지검)
 

2008. 7. 3. 미국 거주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약 3l 가량의 카레분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속에 비닐 팩으로 포장한 대마초 약 114.04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같은 해 7. 14. 수령하여 밀반입
  - 리○○○ 사건(2008. 7. 수원지검)
 

피의자는 캐나다 거주 루○○ ○○○로부터 2008. 7. 8. 대마 3.7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하여 밀반입

- 개○ ○○○ 사건(2008. 8. 제주지검)

피의자는 캐나다 거주 조○ ○○로부터 2008. 8. 5. 땅콩버터 통 속에 대마초 25.93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비○ ○○○○ ○○○ 사건(2008. 9. 부산지검)

피의자는 캐나다 거주 사○ ○○로부터 2008. 9. 2. 고체폴 빈통에 대마 2.23g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밀반입

- 제○ ○ ○ 사건(2008. 11. 광주지검 순천지청)

피의자는 미국 거주 샐○ ○○에 대마초를 한국으로 보내도록 부탁하여 동인이 땅콩버터 속에 대마 38.2g을 은닉하여 국제특송 화물편으로 발송한 것을 2008. 10. 하순경 수령하여 밀반입

- 2009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한○ 사건(2009. 1. 인천지검)

2009. 1. 16. 네덜란드 암스페르담 소재 스키폴공항에서 대마초 948g 및 대마수지 12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 1개를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 맥 ○ ○○○ 사건(2009. 2. 서울중앙지검)

2009. 1. 19. 미국 텍사스에서 국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땅콩버터에 위장된 대마 9.25g 밀수입

- 폐○○○ ○ ○ 등 사건(2009. 3. 인천지검)

피의자는 리비아에 있는 동생 칼○과 공모하여 리비아 소재 벵가지공항에서 내막을 모르는 리비아인 사○ ○에게 대마수지 24.1g을 은닉한 홍차봉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주고 '음식물이니 대한민국에 있는 피의자에게 전달해 달라' 고 하여 위 사○ ○는 리비아 항공기에 탑승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에서 환승하여 2009. 3. 2.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밀수입

## 제4절 대 마

- 사○○○○ 사건(2009. 3. 인천지검)
 

2009. 3. 24.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대마초 10.85g을 3뭉치로 나누어 각각 비닐로 싸고 팬티 안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
- 니○○○ ○○○○ ○○○○ 사건(2009. 5. 인천지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자○(나이지리아 흑인 남성)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마초를 밀반입해 주면 수고비로 미화 3,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비닐 팩으로 포장된 대마초가 각 5,110.5g, 5,060.5g이 은닉된 나무조각품 2개를 건네 받은 후 항공기에 탑승하여 화물로 기탁하고, 카타르 도하에서 환승하여 일본 오사카공항을 경유하여 2009. 5. 2.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밀수입
- 최○○ 대마쿠키<sup>22)</sup> 밀수 사건(2009. 6. 창원지검)
 

미국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미국인 존 ○○○와 메신저 대화중 대마쿠키를 보내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존 ○○○가 국제소포물로 포장하여 송부한 대마쿠키 60개(약 1,497g)를 2009. 6. 16. 국제특급 우편으로 수령하여 밀수입
- 오○○ ○○○ ○○○ 등 사건(2009. 7. 서울중앙지검)
 

피의자들은 나이지리아에 있는 공범 일명 오○의 지시를 받아, 위 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성명불상 백인 여자를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마초 약 4.3kg를 보낸 것을 2009. 7. 7.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령하여 밀수입
- 고○○ ○○○○ ○○○ 사건(2009. 7. 인천지검)
 

피의자(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여성)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초 약 6kg을 은닉한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출발하여 카타르에서 환승하고, 일본을 경유하여 2009. 7. 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
- 김○○ 사건(2009. 8. 서울북부지검)
 

피의자는 미국 내 대마판매조직인 일명 GDS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미화 295달러를 송금

22) weed cookie: 대마성분인 칸나비노이드가 함유된 대마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쿠키로 만든 것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하고, GDS는 2009. 7. 8. 미국발 인천공항행 비행기 국제특송 화물을 이용하여 대마 약 6g을 특송화물용 봉투 안에 넣어 우송하여 이를 밀수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화 393달러를 송금하고, 2009. 8. 3. 대마 약 15.1g을 수령하여 밀수입

- 메○ ○○○ ○○○○ 대마쿠키 밀수 사건(2009. 11. 인천지검)

미국인이며 영어학원 강사인 피의자는 미국 메사츄세츠에서 메○ ○○으로부터 대마가 함유된 대마쿠키 802g을 건네받아 플라스틱 용기에 은닉한 다음 국제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산 소재 피의자 근무지로 발송하여 위 대마쿠키가 2009. 10. 26.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

- 로○○ ○○○ ○○○ 사건(2009. 11. 인천지검)

2009. 11. 24. 미국 시카고에서 여자 친구인 코○○ ○○○가 대마초 44g을 땅콩버터 용기 안에 은닉한 뒤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수령하여 밀수입

● 2010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ㅅ○ ○○○ ○○ 대마강정 밀수 사건(2010. 1. 인천지검)

캐나다인이며 중학교 영어강사인 피의자는 2010. 1.경 캐나다의 ㅁ○○로 하여금 대마강정 147.9g을 은닉한 화장품 상자를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ㅅ○ ○○○ ○○○○ 대마쿠키 밀수 사건(2010. 2. 인천지검)

미국인이며 중학교 영어강사인 피의자는 2010. 2.경 미국의 ㄷ○○ ○○○로 하여금 대마쿠키 171.5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ㅂ○ ○○ ○○○ 대마쿠키 밀수 사건(2010. 2. 인천지검)

미국인이며 영어학원 강사인 피의자는 2010. 1.경 미국의 ㅋ○○로 하여금 대마쿠키 200.83g을 신문지 등과 함께 넣어 은닉하여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제4절 대마

- ㄹㅇㅇㅇㅇㅇㅇㅇ 밀수 사건(2010. 5. 대구지검 서부지청)

2010. 4.경 피의자(체코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체코에 있는 ㄲㅇㅇㅇㅇ와 채팅으로 대마초를 구하여 보내줄 것을 의뢰하고, 대마초 약 9.9g을 국제통상 우편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ㅅㅇㅇㅇㅇㅇ 사건(2010. 5. 제주지검)

캐나다인인 피의자는 2010. 4.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초 약 10.87g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ㄹㅇㅇㅇㅇㅇㅇㅇ 사건(2010. 6. 제주지검)

미국인이며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인 피의자는 2010. 5.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종자 55알을 투명 캡슐 4개에 담아 포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ㅅㅇㅇㅇㅇㅇㅇㅇ 사건(2010. 10. 인천지검)

미국인이며 영어학원 강사인 피의자는 미국에 있는 ㄸㅇㅇㅇㅇ과 공모하여 2010. 2.경 위 ㄸㅇㅇㅇㅇ가 미국 시카고에서 갈색 종이봉투 안에 대마쿠키 171.5g을 넣어 은닉하고 국제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2011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미국 국적 영어강사 밀수 사건(2011. 2. 부산지검)

피의자는 2011. 2.경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통상우편 속에 대마초 약 3.58g을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

- 미국 국적 영어강사 밀수 사건(2011. 6. 수원지검)

피의자는 2011. 5.경 미국에서 우편물 속에 대마초 약 2.43g을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

- 캐나다 여성 밀수 사건(2011. 8. 인천지검)

피의자는 2011. 8.경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대마 약 92.5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성기에 집어넣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

## 2011 마약류 범죄백서

- 미(美)정부 계약근로자 밀수 사건(2011. 12. 서울서부지검)

피의자는 2011. 10.경 미국발 미군사우편 행낭에 대마초 약 50g을 은닉한 후 유니티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